

# 서울의 역사와 문화 공간

엄태웅 · 신호림 · 김여주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 주차별 학습 내용

주차	주차명	차시	차시명
1	서울과의 만남	1-1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1-2	서울의 역사: 조선시대
		1-3	서울의 역사: 해방 전후
		1-4	서울의 역사: 1970년대 이후
2	조선 전기와 한양	2-1	고려 말의 상황과 조선의 건국
		2-2	고려 시대의 문학
		2-3	조선의 건국과 문학
		2-4	오늘날 대중문화 속 조선의 건국
		2-5	오늘날 대중문화 속 세종대왕과 한글
		2-6	오늘날의 한양
3	1637년과 송파	3-1	병자호란과 송파
		3-2	병자호란과 이에 대한 소설적 대응 - 〈강로전〉과 〈박씨전〉
		3-3	병자호란과 이에 대한 소설적 대응 - 〈임경업전〉과 〈김영철전〉
		3-4	병자호란을 다룬 영화의 양상 - 〈최종병기 활〉과 〈남한산성〉
		3-5	오늘날의 송파
4	18세기와 창덕궁·창경궁	4-1	영·정조 시기의 창경궁과 창덕궁
		4-2	혜경궁 홍씨와 『한중록』 그리고 『기사진표리진찬의궤』
		4-3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
		4-4	정조와 의빈 성씨의 사랑 이야기, 〈웃소매 붉은 끝동〉
		4-5	오늘날의 창덕궁과 창경궁
5	20세기 초의 경성	5-1	20세기 초 경성의 모습
		5-2	일제 강점의 역사와 경성
		5-3	20세기 초의 문학
		5-4	20세기 초를 그린 오늘날의 영화
		5-5	20세기 초를 그린 오늘날의 드라마
		5-6	오늘날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의 흔적

주차	주차명	차시	차시명
6	해방 전후의 성북	6-1	조선시대 동소문 밖
		6-2	일제강점기 ‘돈암지구’와 해방이후의 성북구
		6-3	해방공간과 정치공간
		6-4	신도시 ‘돈암’과 문학·예술공간
		6-5	조선의 마지막 땅, 심우장
		6-6	문화예술의 콜라보
7	1970년대와 청계천	7-1	오늘날의 청계천
		7-2	청계천의 역사
		7-3	경제성장기와 청계천
		7-4	전태일의 삶과 청계천
		7-5	현대 이전의 청계천과 문학
		7-6	산업화 시대의 청계천과 문학
8	1988년과 쌍문동	8-1	서울 동북지역과 도봉
		8-2	1980년대의 대중문화
		8-3	1988년으로 회귀하는 오늘날의 대중문화
		8-4	〈응답하라 1988〉과 쌍문동
		8-5	〈아기공룡 둘리〉와 쌍문동
		8-6	오늘날의 쌍문동
9	1997년과 신촌	9-1	1997년을 돌아보다
		9-2	신촌, 90년대 문화의 중심지
		9-3	세대문화의 시작, 1990년대 신촌
		9-4	대한민국을 집어 삼킨 IMF
		9-5	대중문화 개방, 침략이 아닌 자립의 시작
		9-6	레트로의 결정체 1990년대
10	2002년과 광화문광장	10-1	광화문광장의 역사적 중요성과 광화문의 역사
		10-2	광화문광장의 과거와 오늘
		10-3	2002년 한일 월드컵과 응원문화
		10-4	2002년의 대한민국
		10-5	광화문광장의 주요 상징물
		10-6	오늘날의 광화문광장

## 강좌 개요

### 강좌 개발의 필요성 및 적합성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기 위해 기획된 강좌임.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 중 대중문화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사건을 선정한 후 배경지식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해외의 수강생에게 해당 사건의 배경지식을 채워주고자 함. 서울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공간을 제시한 후 당시의 시대상과 문학 작품과 문화를 소개하며, 오늘날의 대중문화에서 해당 시기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다룸. 이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인지하고 현재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과거까지 함께 조망할 수 있도록 함. 마지막으로 오늘날 해당 장소의 현재 모습까지 살펴봄으로써 하나의 공간에 쌓이는 시간성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개발함.

### 강좌의 학습목표

- 한국의 대중문화에 자주 등장하는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서울의 공간을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 작품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의 현재 모습을 통해 변화하는 서울의 변화하는 공간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기대효과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어 접근하며, 당시의 문학 작품 및 대중문화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날의 대중문화에서 다루는 과거의 모습을 포착하는 것을 기대함.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의 공간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1주차

## 서울과의 만남

##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2차시	서울의 역사: 조선시대
3차시	서울의 역사: 해방 전후
4차시	서울의 역사: 1970년대 이후

## 1차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 학습 목표

- 한국의 수도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엄태웅입니다. <서울의 역사와 문화공간>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때문에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 중 대중문화에서 자주 다뤄지는 것들을 시대순으로 선정한 후, 배경지식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조선 전기와 한양, 1637년과 송파, 18세기와 창덕궁·창경궁, 20세기 초의 경성, 해방 전후의 성북, 1970년대와 청계천, 1988년과 쌍문동, 1997년과 신촌, 2002년과 광화문 광장을 살필 예정입니다.

선정한 각 시대의 시대상과 문학작품, 문화를 소개하고 오늘날의 대중문화에서 해당 시기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과거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의 역사와 문화공간>에서는 주차별로 해당 장소의 현재 모습 및 찾아가면 좋을 장소까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 과거가 그 당시를 기록한 방식과 오늘날의 한국인이 과거를 표현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하나의 공간에 쌓이는 시간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공간>에서 다룰 공간인 서울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사실 ‘서울’이라는 말 자체가 한 나라의 수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조선의 서울은 한양”과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서울은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시이고 특별시에 버금가는 광역행정구역은 광역시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광역시로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이 있습니다. 서울의 주소는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와 같이 도로명 주소를 쓰는 방식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와 같이 지번 주소를 쓰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하나의 건물 혹은 땅에 두 개의 주소가 있는 셈이죠. 두 방식 모두 시 아래 단위인 구까지는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25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나다순으로 나열해보겠습니다.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그리고 중랑구. 서울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선사 시대 때부터라고 합니다. 한강유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수만 년 전인 구석기 시대부터이며 본격적으로 마을을 이루고 살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은 강동구 암사동에 있습니다.

기원전 18년부터 475년까지 서울은 백제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백제는 수도를 여러 번 옮겼는데요. 그중 한 곳이 서울이며 그 당시 명칭은 위례성이었습니다. 이때 흔적은 송파구에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례성은 후에 큰 성이라는 뜻의 ‘한성’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때를 ‘한성백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송파구에 ‘한성백제박물관’도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서울 지역은 고구려가 점령하기도 하는데요. 고구려 시대의 유적은 아차산 고구려 유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고구려 다음으로 한강 유역을 지배한 곳은 신라입니다. 신라는 6세기 중엽 한강 유역을 백제, 고구려에게서 빼앗은 후 서울의 산인 북한산에 영토를 선포하기 위해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세웁니다. 현재 북한산에는 모조품이 세워져 있고요. 진품은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918년부터 1392년까지 한반도에 위치했던 국가인 고려는 서울을 수도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남경이라 부르며 주요 지역으로 관리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고려의 유적은 고려 시대 명장인 강감찬 장군이 948년 태어난 곳인 ‘낙성대’입니다. 오늘날 관악구 봉천동에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 하여 낙성대라 부릅니다.

1392년부터 1910년까지 한반도에 위치했던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은 서울을 수도로 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서울, 한양을 도읍지도 정하고 배산임수와 풍수지리에 맞춰 유교적 이념을 구현한 공간으로 건설합니다. ‘한양’이라는 말 자체는 한강의 북쪽에 있다는 뜻인데요. 신라 시대부터 사용된 지명입니다.

역사적으로 서울은 백제와 조선, 대한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조선의 한양 천도인 1392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은 최근 600년 이상 한반도의 수도로 기능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조선 시대가 현재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조선의 흔적은 서울



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양의 경우 한양도성을 기준으로 안쪽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날 서울의 영역보다 훨씬 작습니다. 태조가 한양을 세우며 제일 먼저 지은 건물은 경복궁입니다. 이후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등 궁궐을 새로 지어서 조선은 5개의 궁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묘는 조선의 왕과 왕비를 모신 왕실 사당으로 왕실의 제사를 지냅니다.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인 종묘제례 및 제례악이 재현되니까요. 궁금한 분들은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땅과 곡식의 신에게 국가의 제사를 드리는 공간인 ‘사직단’에서도 매년 9월 셋째 주 일요일마다 사직대제를 열고 있습니다. 덕수궁을 나서 사직단에 이르는 여가 행렬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날 광화문광장에 있었던 육조거리, 윤종가와 육의전은 서울에서 제일 큰 거리가 있었습니다. 윤종가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린다는 뜻으로 서울에서 제일 큰 규모의 시장인 육의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만약 조선 시대 선비들의 삶을 보고 싶다면 중구에 위치한 남산골 한옥마을을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한양의 영역 둘러 설치한 한양도성도 산책로로 만나볼 수 있으며 전 구간은 아니지만 일정 구간이 남아 있으니 한양도성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이곳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휘장은 서울의 산을 초록색으로, 해는 빨간색으로, 한강을 파란색으로 나타냅니다. 산은 환경을, 청색인 한강은 역사와 활력을, 가운데 해는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드러낸다고 하는데요.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신명 나는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이는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 <춤추는 사람(아이)>에 나오는 그림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기도 합니다.

서울은 매우 큰 도시이며 여러 역사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 속에는 기쁨의 역사도 있으며 치욕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단위의 큰 역사도 있지만 개인이 남긴 작은 일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하는 공간이 바로 서울입니다. 여러분도 이 강좌를 듣고 서울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떠나볼까요?

#### 【참고문헌】

- 광화문광장 아카이브
- 국가문화유산포털



- 국토지리정보원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2차시 서울의 역사: 조선시대

### 학습 목표

- 조선시대 서울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시대 서울의 역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00여 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했던 국가이기에 현대의 한국과 서울을 이해함에 있어 조선 시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조선을 세운 왕인 태조는 1394년 한양으로 새 도읍지를 정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새 나라를 세우며 수도도 새롭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조는 불교의 승려인 ‘무학대사’에게 새로운 도읍지를 찾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무학대사는 조선의 도읍지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왕십리를 보고는 매우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왕십리를 도읍으로 정하려 합니다. 그 순간 한 노인이 소를 끌고 지나가면서 “무학같이 미련하다”고 소에게 말합니다. 이를 들은 무학대사는 노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도읍이 될 만한 곳을 아시냐고요. 노인은 북서쪽으로 10리를 더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홀연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학대사는 노인이 알려준 방향으로 걸어갔고 노인이 말한 10리를 더 간 곳, 그곳이 바로 한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학대사와 노인이 만난 곳은 10리를 더 가라는 뜻의 왕십리가 되었습니다.

왕십리는 오늘날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5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이 다니는데요. 이 정도로 여러 호선이 연결되는 지하철역도 드뭅니다. 꽤 큰 쇼핑몰과도 붙어 있고요. 주변에 한양대학교도 있어서 먹을거리, 즐길 거리도 많습니다.

태조는 1394년 해당 위치에 도읍을 정한 후 도시계획을 위해 ‘신도궁궐조성도감’을 설치하였고 수도가 갖추어야 할 궁궐과 왕가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종묘’, 국토와 곡식의 번창을 기원하는 장소인 ‘사직’ 등 중심 건물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더 나아가 도로, 배수, 관공서의 위치 등을 계획합니다. 한양은 자연

적으로 생겨난 마을이 확장된 형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조선 시대의 한양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읍지 한양은 나라의 중심에 위치하고, 산과 물이 있어 경관도 아름답습니다. 한양은 동서남북 방위에 맞는 자연물이 있습니다. 한양은 4개의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타락산, 낙산이라고도 합니다. 서쪽으로는 인왕산, 남쪽으로는 목멱산, 남산타워가 있는 그 산입니다. 북쪽으로는 백악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청계천이 흐릅니다. 또 한양은 4개의 큰 문 안의 영역입니다. 이를 사대문이라 합니다. 동쪽에는 흥인지문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돈의문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남쪽에는 숭례문이 있고 북쪽에는 숙정문이 있습니다. 각 대문에 방위를 붙여 동대문, 남대문과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방, 그러니까 네 방위의 문 사이에 작은 문 즉, 사소문도 있습니다. 동북 방향에는 혜화문이 있고요. 동남 방향에는 광희문이 있습니다. 서북 방향에는 창의문, 서남 방향에는 소의문이 있습니다. 이 작은 문은 동소문, 남소문, 북소문, 서소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8개의 문을 꼭 연결하면 한양도성이 됩니다. 그러면 한양도성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역사와 문화공간>에서는 2주차부터 4주차까지 조선에 집중합니다. 2주차는 조선 전기, 3주차는 조선 중기, 4주차는 조선 후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조선 전기를 다룬 2주차, 조선 전기와 한양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고려 말의 상황부터 조선의 건국 그리고 오늘날 대중문화에서 자주 다루는 조선 초기 사건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한양 모습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주차는 고려 말의 상황과 조선의 건국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조선 건국 당시의 상황과 정치 세력의 이동에 대해 자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려 시대의 문학작품을 살펴보면, 조선 건국 이전의 시대상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려 시대 농민의 삶을 묘사한 작품인 김극기의 <보산역에서>, 이규보의 <농부를 대신하여 읍다>, 이곡의 <기행시 한 수-청주 참군에게 주다>, 윤여형 <도톨밤 노래> 등을 살펴보면 농민을 바라보는 지식인의 인식 변화에 대해 추적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조선의 건국과 문학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건국과 왕조의 정당성을 노래한 악장이라는 장르가 있는데요. 악장 중 <유림가>, <신도가>, <용비어천가>를 통해 세부 양상을 살펴봅니다. 특히 정도전의 <신도가>는 새로운 도읍에 대한 노래로 한양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요. 태조의 성덕도 송축합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이용이 1982년에 발표한 <서울>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통해 <신도가>에서 노래했던 한양과 서울에서 노래한 서울을 비

교해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전기에 있었던 사건 중 자주 다뤄지는 사건 2개를 뽑고 이 사건을 다루는 대중문화 작품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1392년 조선 건국과 1398년과 1400년에 있었던 두 차례 왕자의 난입니다. KBS1에서 1996년에 방영한 <용의 눈물>, 2021년에 방영한 <태종 이방원>, 2014년에 방영한 <정도전>, 마지막으로 SBS 방송국에서 2015년에 방영한 <육룡이 나르샤>는 모두 조선 건국 시기를 다루지만, 그 내용과 강조 지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작품을 소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중문화에서 많이 다루는 조선 전기 사건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입니다. 세종대왕은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인데요. 자주적인 조선의 문자를 만들어 백성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애민 정신으로 ‘한글’이라는 한국어 표기 시스템을 만듭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각국의 문맹 퇴치 사업에 공을 세운 개인 혹은 단체에게 주는 공로상의 이름을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으로 정하고 1990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은 현대의 한국인에게도 매우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날의 대중문화에서도 세종대왕을 자주 다룹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SBS에서 2011년 방영한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영화 <나랏말싸미>를 중심으로 세종대왕 그리고 한글 창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2주차의 마지막에는 앞서 살펴본 서울 한양도성의 오늘날 모습을 사진과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양과 서울을 함께 여행하는 시간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주차는 ‘1637년과 송파’입니다. 이 주차는 조선 중기의 중요 사건 중 하나인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하며 병자호란 직후 창작된 소설 네 편 그리고 오늘날의 영화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의 오늘날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주차는 병자호란에 대해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1637년에 있었던 병자호란은 1592년의 임진왜란과 함께 양란이라고 불립니다. 이 두 전쟁은 조선에게 아픈 상처를 남긴 전쟁이었는데요. 특히 병자호란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겪은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발발한 사건이었고 조선의 임금인 인조가 청나라의 황제에게 나아가 신하의 예를 갖추며 항복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한국인에게도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적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병자호란이 발생하기까지 16세기 조선의 상황과 동북아 국제 정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병자호란 직후, 일상적인 차원에서 패배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문학작품이 창작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소설로는

<강로전>, <박씨전>, <임경업전>, <김영철전>을 함께 읽고요. 병자호란에 대한 소설적 대응을 전쟁 패배의 원인을 제3자에게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 영웅을 통한 상상의 승리 쟁취, 정체성 혼란을 형상화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강로전>은 전쟁 패배의 원인을 제3자에게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에 대해 잘 보여줍니다. 다른 인물과의 대조 및 애정 서사, 임종 장면 등에서 강홍립의 부정성을 강화하는데요. 소설의 장면을 함께 읽어나가며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씨전>은 여성 영웅 소설로 이 소설에서는 박씨를 이인, 경계인 등으로 형상화하고 병자호란에서 활약하는 인물로 그려냅니다. 다만 박씨가 실존했던 인물은 아니며 상상의 인물로라도 승리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조선 민중의 마음이 소설에 투영된 것이죠. 그런데 소설인 <박씨전>에서도 온전한 승리가 아닌 패배한 전쟁이라는 현실과 함께, 그 속에 부분적 승리를 그려냈다는 점에서 당시 민중의 마음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소설입니다.

<임경업전>의 임경업은 남성이며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수업을 듣는다면 <임경업전>이 소설 속에 허구적 사건을 추가하고 위정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키는 방식으로 서사가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철전>은 당시의 정체성 혼란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김영철은 국가나 사회보다 가족을 더 우선시합니다. 또한 여러 국가로 이동하며 명나라 사람이자, 청나라 사람이자, 조선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획득합니다.

이렇게 병자호란을 소설로 재현한 작품을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는 오늘날의 영화 작품을 통해 현대 한국인이 병자호란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늘날의 영화에서도 소설과 비슷하게 상상적 주체들이 영화에 등장하며 상상적 승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1636년의 사건을 통해 역사에 대한 반성적 검토도 드러냅니다.

이를 위해 본 강좌에서는 영화 <최종병기 활>과 <남한산성>을 살펴봅니다. 전쟁과 개인, 가족의 서사를 보여주며 당시 조선의 조정에 대한 비판 의식을 그려낸 <최종병기 활>, 청나라와 화친하자는 신하와 전쟁을 해서라도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신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조의 모습을 그려낸 <남한산성>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인조의 항복 장소는 과거 한강 상류의 나

루였던 ‘삼전도’였고 청나라는 항복의 내용을 담은 비석인 ‘삼전도 청태종 공덕비’ 즉, 삼전도비를 세우게 합니다. 삼전도비는 롯데월드가 있는 석촌호수에 있는데요. 해당 강좌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송파에 있는 풍납토성, 몽촌토성을 통해 한성백제 시절 유적을 살펴보고 1988년 서울올림픽의 경기장을 중심으로 조성한 서울올림픽공원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송파 지역에서 전승되는 서울 지역 유일의 탈놀이인 ‘송파산대놀이’ 12마당도 볼 수 있습니다.

4주차에서는 영조와 정조 시기의 창덕궁과 창경궁을 다룹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은 조선 후기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목조 건물이었던 궁이 불에 탔는데 전쟁 수습 과정에서 경복궁을 복원하지 않고 창덕궁과 창경궁을 먼저 복원하여 궁궐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1600년대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조선의 왕족은 창덕궁과 창경궁에 머물렀습니다.

그중에서도 1724년부터 1776년까지 조선을 다스렸던 ‘영조’와 1776년부터 1800년까지 다스린 ‘정조’의 시대를 살펴보는 것은 두 임금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뤄냈고 이로 인해 여러 문화가 조선에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영조와 정조는 인재 등용 시스템인 탕평책을 실시한다거나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을 설치하여 조선의 안정을 찾아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강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문화가 꽃핀 시기였던 영조·정조 시대에는 조선 왕족에게 큰 아픔이 있는 시기 중 하나입니다. 영조의 아들이자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 그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사건입니다. 사도세자의 부인인 ‘혜경궁 홍씨’는 훗날 <<한중록>>을 통해서 남편인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하고 동시에 자신의 억울함을 표출합니다. 이런 혜경궁 홍씨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듯 아들인 정조는 혜경궁 홍씨에게 궁호를 내려 그녀를 대접했고요. 손자인 순조는 1809년에 혜경궁 홍씨의 입궁 60주년을 축하하는 ‘진표리 의례’와 ‘진찬’을 열어드립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 <<기사진표리진찬의례>>는 행사의 모든 상황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 오늘날 우리도 당시 행사의 규모에 대해 알 수 있게 합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인 임오화변에 앞서 영조, 사도세자, 정조가 놓던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강의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영조의 아버지인 숙종 대의 상황과 희빈 장씨, 인현왕후의 이야기를 다룬, 오늘날의 대중문화에서 희빈 장씨를 향한 상반된

시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가 등장한 드라마 SBS <장옥정, 사랑에 살다>와 MBC <동이>를 통해 숙빈 최씨의 출신 및 이로 인한 영조의 콤플렉스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도세자가 남긴 기록과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사도세자의 죽음 당시 상황을 전달합니다.

왕실에서 여러 슬픈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 사랑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정조와 ‘의빈 성씨’의 사랑은 한국인 모두가 알 정도로 유명한데요. 2007년에 방영한 MBC <이산>, 2021년에 방영한 <옷소매 붉은 끝동>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배역명을 세종, 정조와 같이 묘호로 하는 것과 이도, 이산과 같은 본명으로 하는 것의 차이도 알아보고 tvN <슈룹>을 통해 내명부 즉, 왕비와 후궁 제도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빈 성씨가 15년 동안 두 차례나 정조의 승을 거절한 이야기. 의빈 성씨의 실제 삶, 의빈 성씨의 사망 이후 정조의 마음을 담은 <<어제의빈묘지명>>을 통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덕궁과 창경궁을 오늘날의 여러분과 함께 관람한다고 생각하고 관람 코스대로 창덕궁과 창경궁의 주요 지점을 설명합니다. 창덕궁의 멋진 모습을 돈화문, 금천교, 궐내각사, 인정전, 선정전, 희정당, 대조전, 낙선재 순으로 창경궁의 아름다운 모습을 홍화문, 명정전, 문정전, 숭문당, 환경전, 경춘전, 통명전, 양화당, 영춘헌, 집복헌, 춘당지, 관덕정 이런 순서로 살펴봅니다. 함께 아름다운 조선의 궁궐과 한양으로 놀러 가볼까요?

#### 【참고문헌】

- 문화유산채널
- 서울역사아카이브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 3차시 서울의 역사: 해방 전후

---

### 학습 목표

---

- 해방 전후 서울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근대 이후 서울의 역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1876년 일본과 맺은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조약’을 시작으로 국제무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1884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총국’에서 조선 스스로의 독립 및 근대화를 꿈꾼 조선의 개화파가 세력을 잡으려 한 사건이 있었지만 삼일천하로 끝나고 맙니다. 우정총국은 사적 21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안에 작은 전시실이 꾸며져 있어 1900년대 우정국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물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97년, 조선의 26번째 왕인 고종은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사적 157호 ‘환구단’입니다. 환구단은 고려 성종 2년 983년에 설치된 매우 역사가 긴 곳입니다.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장소였는데요, 조선 초기에는 하늘에 올리는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사용되지 않다가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 선포하면서 다시 설치된 곳입니다. 조선, 곧 대한제국이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독립국가임을 보여주겠다는 고종의 의지, 왕권을 중심으로 개혁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문은 1897년에 세워졌는데요, 한국의 영구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 전국민 모금 운동으로 세워진 문입니다. 때문에 총 공사비가 당시 돈으로 3825원이 들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조선 시대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장소인 영은문 뒤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영은문을 부수기는 했으나 기둥을 세웠던 주 기둥의 아랫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독립문은 파리의 개선문을 참조하여 만들었기에 모양이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런 독립의 열망과는 달리 1905년 덕수궁 중명전에서는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의 ‘제2차 한일협약’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협약을 위해 증명전으로 밀고 들어왔고 증명전 앞 공간에는 일본군 헌병대가 가득했습니다. 일본 대표였던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의 신하를 협박했고 결국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일본이 대행하게 됩니다. 해당 협약에는 고종황제의 옥새도 날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증명전은 1925년 화재로 모두 불에 탔는데 외벽이 남아 있어 복원한 것입니다. 또한 원래는 덕수궁 담 안에 있었지만 덕수궁 담을 안으로 옮기면서 현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선과 대한제국은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해 1910년 일본과 강제합병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은 일제에 의한 지배 시기인 일제강점기를 겪게 됩니다.

<서울의 역사와 문화 공간>에서는 5주차에 이 시기 경성의 모습을, 6주차에 해방 전후의 성북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5주차는 ‘20세기 초의 경성’을 주제로 해서 구한말 경성의 모습, 일제 강점의 역사와 경성, 20세기 초의 문화를 살펴보고 20세기 초를 그린 오늘날의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살펴봅니다.

구한말, 여기서 구한말은 대한제국을 뜻하는 옛날 한국 즉, ‘구-한국’이라는 단어에 끝이라는 뜻의 ‘말’을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원래 대한제국 시기인 1897년부터 1910년까지를 말하지만 조선 말까지를 넓게 일컫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개항이 이루어졌고 개항 이후 국가 내 서울의 경제적 비중이 축소되기도 합니다. 이는 개항장 주변 즉, 인천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은 1895년 행정 제도 개편 과정에서 경기도 산하의 군으로 격하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84년 갑신정변, 1895년 고종의 부인인 명성황후가 일본 공사를 주축으로 한 일본인에 의해 경복궁에서 시해당한 사건인 을미사변,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한 사건인 아관파천, 1897년 대한제국 선포 등 여러 사건이 숨 가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 한일합병을 겪습니다. 이후 한양은 ‘경성’이라 불리게 되고 이 시기를 일제강점기라 부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이 경성으로 많이 들어오며 경성의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다만 일본 제국이 설치한 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는 일본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인 남대문로, 을지로, 충무로를 중심으로 도시 개발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서양식 건물을 세우고, 용산과 영등포 일대에는 공장을 많이 건설합니다. 1900년대 초 경성에는 백화점도 생깁니다. 1906년에는 명동에 미쓰코시 백화점이 설립되었고 1920년대에는 조지아 백화점과 미나카이 백화점, 1930년대

에는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백화점인 화신백화점이 들어섭니다. 당시 한국인은 경성을 중심으로 일본에 대항하는 운동 즉,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에 나섰고 일본은 1930년대 중국 대륙 침략을 위한 보급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병참기지로 경성을 바꾸어 나가게 됩니다. 이 시기 유행했던 문학 장르를 통해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기도 한데요.

강의에서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이상의 <날개>, 이효석의 <도시와 유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는 인력거꾼의 모습과 양복 입은 손님, 기숙사에 사는 학생과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임노동자로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를 통해 1920년대 경성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날개>는 경성의 공간적 배경을 잘 활용한 소설입니다. 이상의 <날개>에서 주인공인 ‘나’가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자주 가는 공간으로 경성역 커피숍을 설정했으며 소설의 마지막에 주인공의 자살을 암시하는 공간이 바로 미쓰코시 백화점입니다. 이효석의 <도시와 유령>에서도 미장일을 하는 일인칭 주인공이 임노동자로 등장하며 건설 현장의 힘든 모습 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변화한 경성의 모습은 조선 시대에도 유행했던 장르인 시조와 가사에서 역시 포착됩니다. <망월사친가>에는 만주에서 살다가 공부를 위해 고국에 돌아온 남성이 당시 경성의 모습을 타지에서 온 이방인의 시선으로 그려내며 이 모습을 풍경화처럼 그려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부랑자경고가>는 경고와 훈계를 노래한 작품인데요. 도시화로 변화한 경성의 모습을 포착한 작가는 사치나 유흥으로 재산을 모두 써버린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문학작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선에서 20세기 초를 바라볼까요? 이 시기를 다룬 영화는 주로 독립운동을 다룬다거나, 변화하는 경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는 조선인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강의에서는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로 2020년의 <영웅>과 2019년 <항거: 유관순 이야기>, 2017년 <대장 김창수> 그리고 2015년 <암살>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작품에서는 영화 속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두드러지며 일제 식민 지배 속의 독립운동이 매우 극적으로 그려집니다.

변화하는 경성의 화려한 모습을 다룬 영화로는 2008년에 방영된 <모던보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던보이는 1920년대에서 30년대 경성의 소비문화를 주도한 서구적 모습과 취미, 언어, 의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남성을 말합니다. 모던보이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나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 <모던보이>에서는 당시 경성의 모습을 잘 재현해 두었기에 경성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수어를 듣고 영화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002년에 개봉한 <YMCA 야구단>은 조선인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1900년대 초 한국 최초의 야구단인 황성기독교청년회 야구단을 그려내며 전통과 변화 사이에 위치한 인물들이 야구를 만나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시에 야구는 새로운 것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야구는 매우 친숙한 스포츠인데요. 이 사이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매우 재밌을 것입니다. 이 시기를 다룬 드라마에서도 일제강점기 속 조선인의 삶을 드러내거나 일제에 대한 항거를 보여줍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조선인의 삶은 tvN에서 2018년에 방영한 <미스터 션샤인> 그리고 MBC에서 2019년에 방영한 <이몽>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작품 속에서 당시 경성을 실감 나게 복원했는데요. 작품 속 주요 장소인 글로리 호텔은 대한제국에서 여러 국가와 외교를 맺는 과정에 귀빈을 모실 숙소로 운영되었던 ‘손탁호텔’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의 여주인공인 고애신은 여성을 위한 근대적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에 다닙니다. 이화학당은 오늘날 이화여고, 이화여대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이몽> 조선총독부와 종로경찰서를 주요한 배경으로 삼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에는 독립운동가 김원봉이 등장하며 독립운동 시기 몇몇 사건을 재현하여 보여줍니다. 일제에 대한 항거는 2012년에 방영한 KBS2의 <각시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당 시대로 갈 수 없지만 20세기 초 경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오늘날의 콘텐츠는 그 당시 경성의 다양한 모습을 잘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서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일제강점기의 흔적도 알아 봐야겠죠?

강의에서는 남산과 조선 신궁, 경복궁과 조선총독부, 환구단과 호텔을 다룹니다. 오늘날 서울 시민의 휴식처로 잘 알려진 남산에는 일제가 1919년에 세운 조선 신궁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신궁은 허물어졌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신의 동상을 조선 신궁 터에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1960년 4·19 혁명 이후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곳에는 독립운동가인 김구 선생의 동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철거되었지만, 조선총독부 건물은 경복궁에 지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복궁 외에도 조선 궁궐의 많은 곳이 함께 철거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 건물은 광화문 바로 뒤에 있었기에 경복궁을 모두 가리는 형태였습니다. 이 건물은 해방 이후에도 미군정청 청사로 사용했고, 대한민국 정부 청사로도 사용

되었으며 1986년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됩니다. 이 건물은 1995년이 되어서야 철거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경복궁 등의 복원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대한제국은 환구단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일제는 대한제국이 망한 이후, 이 자리에 조선철도호텔을 짓습니다. 이 호텔이 현재의 웨스틴조선호텔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구단의 영역도 축소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의 모습은

6주차 ‘해방 전후의 성북’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주차는 성북을 중심으로 하기에 시대에 따른 성북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북 지역은 조선시대 동소문인 혜화문 밖의 영역이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돈암지구였고, 해방 이후에는 성북구가 되는데요.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성북은 해방 공간이자 정치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도시 돈암은 문학·예술 공간으로 거듭났으며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에 이들의 컬래버 과정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주차에는 직접 성북구의 지역을 현장 촬영하였기에 오늘날 성북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경성의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 과정에서 돈암 지역은 농경지와 촌락, 도시 빈민의 토막촌이었습니다. 1941년에는 돈암지구가 완공되는데 워낙 수요가 많아 급하게 개발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돈암동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된 것은 군사 정권기(1960-70년대)인데요. 이 지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북의 주요 장소로는 삼선평과 심우장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삼선평은 조선 후기 군사 훈련장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1896년 최초의 근대식 운동회가 열린 곳이며 구한말 삼선평에서는 총 34차례의 운동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운동회는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의 독립 의지와 민족의식을 높였고요. 일본인과 직접적인 마찰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1907년 삼선평에서 ‘삼선평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연설에서는 스스로 열강의 침탈 속에서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군사적인 힘을 기를 것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민주적 공화정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선언으로 인해 삼선평은 정치적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의 정치를 주도한 정치인인 이승만, 조소앙, 안재홍, 조병옥은 돈암과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문학 및 예술 관련 인사들도 돈암 지역에 거주하며 성북의 모습을 문학작품에 그려냈습니다. 일제강점기 돈암지구의 모습은 이태준, 김용준, 팔보의 글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해방 이후 전쟁의 상흔은 박완서, 조지훈, 김성철, 김동리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60년

대와 70년대 전쟁 이후 복구 과정 그리고 도시화는 김내성, 김소진, 김광섭이 잘 포착해냈고 4·19와 민주화운동은 신동엽, 조지훈, 김수영이 다루고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미아리 점성촌과 돈암지구 재개발은 신경림, 권혁웅, 김대성의 작품에서 2000년대 이후는 윤대녕, 최일남의 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해당 주차 강좌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만해 한용운이 55세부터 입적한 66세까지 지내던 집인 심우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심우’는 소를 찾는다는 뜻으로 수행자가 본성을 깨달아가는 첫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1937년 옥에서 사망한 독립운동가 김동삼의 시신을 돌볼 사람이 없자 만해 한용운이 수습하여 장례식을 열어주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에 “마지막 남은 조선의 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우장에서는 매년 6월 심우장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심우>를 공연하기도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가 이중섭, 시인 김상옥, 작곡가 금수현의 교류도 살펴보았는데요. 이중섭은 시인 김상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방명록에 <닭과 개>라는 작품을 남깁니다. 김상옥은 이 그림을 보고 시, <꽃으로 그린 악보>를 창작했고요. 금수현은 이 시를 읽고 가곡, <꽃으로 그린 그림>을 작곡합니다.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보여준 문화예술의 컬래버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 공간> 6주차에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 【참고문헌】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 4차시 서울의 역사: 1970년대 이후

---

### 학습 목표

---

- 1970년대 이후 서울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서울의 역사에 대해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강의는 7주차부터 10주차까지인데요. 7주차에는 1970년대와 청계천, 8주차에는 1988년과 쌍문동, 9주차에는 1997년과 신촌, 10주차에는 2002년과 광화문광장으로 떠납니다.

1970년대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청계천은 서울의 사대문 안을 흐르는 하천입니다. 위치의 중요성 때문인지 청계천의 역사는 서울의 역사와 궤를 같이합니다. 또한 청계천을 중심으로 197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대상을 다루는 작품을 살펴보면, 청계천의 다양한 모습을 전해주겠습니다.

7주차는 청계천의 역사도 살펴봅니다. 청계천은 조선이 한양으로 수도를 정하면서부터 관리된 하천입니다. 조선의 3대 왕인 태종은 ‘개천도감’을 설치하여 개천정비사업을 시행했고 이때부터 ‘개천’은 청계천을 부르는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4대 왕인 세종은 개천을 생활하천으로 규정하여 도성 전체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선의 21대 왕인 영조는 ‘준천사’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개천을 깨끗하게 회복시켰습니다. 다만 일제강점기부터 청계천은 개천 대신 ‘청계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식민 지배의 중추기관을 청계천 이북으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8년부터 청계천을 정비하였으나 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었습니다.

오늘날 청계천은 서울의 대표적 명소인데요. 이러한 모습으로 복원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청계천은 1970년대, ‘청계고가도로’로 덮여 하천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간을 들여 복원한 것입니다. 이 복원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열섬 현상을 해소했으며 침수 방지 효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있었던 상권의 이전 문제, 인위적인 생태계 조성, 문화재 복원 등의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청계천이 복원되어서 좋은 점과 그렇



지 않은 점이 동시에 발생한 것이죠. 이는 1970년대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차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국민은 가족과 국가를 위해 해외로 나가 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1970년대 청계천은 판자촌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말에 건설된 세운상가, 낙원상가가 준공되면서 청계천은 서울의 근대화와 산업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청계천 복원에도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청계천 주변의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화와 산업화 공간인 청계천에는 여러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전태일 열사는 1970년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노동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받는데요. 전태일 열사에 대해 다룬 영화, 평전, 애니메이션 등을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1970년대에는 노동 문제, 여성 문제가 공존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도시 하층민의 현실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에서, 도시 노동자의 현실은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에서, 희생된 여성의 모습은 영화로도 각색된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계천에는 인쇄소, 서점 등이 자리 잡고 있기도 했는데요. 오늘날에도 청계천에 헌책방이 모여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과거 청계천 주변에는 책을 출판하는 방식인 방각본 간행이 많이 이루어졌고 방각본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도 많았다고 합니다. 청계천은 지식 대중화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가진 공간인 청계천을 서울의 역사와 문화공간 7주차 강좌와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1980년대는 쌍문동을 중심으로 합니다. 1988년에는 세계적 행사였던 88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다룬 대중문화 작품을 통해 1988년이 한국인에게 갖는 의미, 그리고 오늘날 대중문화에서 서울 서민 문화의 대표 장소로 그려지는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봉구는 서울의 동북 지역 3개 구 중 한 곳입니다. 도봉구는 이름에서처럼 도봉산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도봉산에 대해 노래한 조선 시대 한시 이항복의 <추일>, 이식의 <도봉제설>, 청음 김상헌의 시, 송시열의 <제도봉서원>, 정조가 남긴 <만장봉>이라는 시를 통해 과거 도봉산의 모습을 짐작해볼 수 있겠습니

다. 도봉을 노래한 박두진의 시 <도봉>을 통해 과거와 현재 지식인이 자연물인 도봉산에 대한 감정을 나타낸 것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의 유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980년대 대중문화를 살펴보았는데요. 한국에는 ‘7080’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의에서는 가수 조용필과 이선희, 송골매, 고 유재하, 이문세의 노래를 통해 오늘날 K팝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대중문화로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방영한 MBC의 <전원일기>와 <우리매 시리즈>를 살펴보고 만화인 <아기공룡 둘리>, <공포의 외인구단>을 소개합니다.

오늘날의 대중문화에서는 시간적으로 1980년대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1980년대를 어떻게 추억하는지 알아보으로써 오늘날 한국이 과거를 어떻게 대상화하는지도 알 수 있겠죠?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것을 오늘날의 인물이 해결하고자 과거로 뛰어드는 것인데요. 작품으로는 2011년 개봉한 영화 <써니>,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 <응답하라> 시리즈를 중심으로 과거 회귀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1988년이 자주 소환되는 이유는 제24회 서울올림픽과 같은 세계적 행사가 국민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노력과 희생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말했지만, 오늘날에는 무언가 그 시대에 하지 못한 이야기를 찾아 드라마, 영화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쌍문동은 오늘날 서민 문화의 대표적 공간으로 대중문화에서 쓰입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다루는 쌍문동은 쌍문동의 1988년을 재현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울의 1988년을 쌍문동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구축한 것인데요. 쌍문동이 서울의 외곽이라는 점과 교통이 편찮은 서민 주거지라는 특징 때문에 서울 서민 주거지의 표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아기공룡 둘리>의 배경도 쌍문동입니다. 해당 만화 캐릭터의 배경인 쌍문동은 둘리로 특화한 공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경찰서, 주민센터, 소방서까지, (그리고) 둘리 그림이 그려진 길도 있습니다. 쌍문동과 둘리에 대해서도 강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도봉구에서 갈 수 있는 명소도 소개하겠습니다. 도봉산, 연산군묘, 서울 초안산 분묘군, 정의공주 묘역, 간송옛집, 원당샘공원과 같은 역사적 공간도 있고 서울창포원과 평화문화진지, 둘리뮤지엄과 쌍리단길도 있습니다. 강의

를 통해 함께 추천 명소를 둘러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대는 신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한국에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 서울의 모습과 오늘날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대중문화 작품을 살펴본다면 현대에 발생한 국가적 차원의 위기 극복 및 개인이 극복하는 위기 양상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촌은 대학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대학생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동성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90년대도 ‘명과 암’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복고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1990년대. 아이돌 문화와 대중음악의 전성기이며 오락 문화와 PC 통신을 꽃피운 이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트콤과 개그 프로그램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촌을 중심으로 1990년대 대학가의 모습과 뽀빠, 공중전화로 소통하던 당시의 모습 그리고 커피숍 문화를 대표하는 신촌 독수리다방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행했던 노래도 몇 곡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는 ‘세기말 감성’으로도 유명한데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패션이 나타나고 힙합 패션, 폭주족, 오렌지족 등의 용어가 사용됩니다.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농구대잔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1990년대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997년에 발발한 IMF 외환위기는 전 국가적인 위기였으며 개인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의 아버지는 실업자가 되었는데 이는 한스밴드의 노래 <오락실>에 잘 드러납니다. 외환위기의 좌절을 직접적으로 다룬 콘텐츠도 있는데요.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나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아버지와 딸의 실직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2018년 방영된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속 등장인물이 겪는 시련도 IMF 외환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인은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연상시키는 1997년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합니다. IMF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기도 했지만, 한국인의 위기 극복 역량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일본에 대한 대중문화 개방도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역사 때문인지 일본의 콘텐츠는 한국에 공식적으로 수입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불법적으로 일본 콘텐츠를 받아들이기도 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제대로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개방을 하면 일본의 문화에 한국의 문화가 잠

식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한류’로 불리는 한국 문화 붐이 있을 만큼 자체적인 한국 문화의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같은 콘텐츠부터 아이돌그룹, 더 나아가 먹거리까지 한국 문화가 해외로 전파되고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고 열풍의 중심에 있는 1990년대를 다룬 여러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청춘을 확인하는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청춘의 첫사랑을 추억하는 영화 <건축학개론>, 아픔을 극복하는 청춘인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은 아름다운 1990년대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는 광화문광장을 살펴봅니다. 2002년에는 한일월드컵이 있었습니다. 1988년에 이어 다시 맞이한 세계적인 행사인 월드컵은 한국인에게 큰 의미를 갖는데요. 이 시기를 바탕으로 한 대중문화를 통해 이러한 양상을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랑받는 월드컵 응원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과 같은 시간에 발생한 국가적 사건을 논의하며 같은 시점에 발생하는 여러 사건의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은 휴식의 공간이자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공간이기도 합니다. 광화문광장의 역사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광화문은 1395년 경복궁의 정문으로 건립된 문입니다. 그런데 1592년 임진왜란 때 파괴되었다가 1865년 흥선대원군이 재건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광화문 바로 뒤에 세워지기도 했고 1950년 한국전쟁 때는 이 문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광화문은 복원이 되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었으며 광화문 바로 앞에는 광화문광장이라는 쉼터가 생겼습니다. 광화문도 한국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의 광화문광장은 조선의 중앙행정기관인 육조가 있었던 육조거리였습니다. 20세기에는 광화문 철골 아치를 통해 국가사업에 대해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중앙분리대 형식이었던 곳을 광화문광장으로 만들었으며 2022년에는 섬과 같은 형식으로 도로 사이에 싸여 있던 광화문광장을 진정한 광장으로 만들기 위해 양쪽으로 도로를 뚫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도로를 몰아 두는 형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광화문광장은 조선 시대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이자 20세기 국가 선전의 수단이었으며 21세기에는 정치 소통과 응원 문화의 중심지로 나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2002년에는 한일월드컵이 있었는데요. 이때 광화문광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길거리 응원 문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월드컵 공식 응원과 한국의 응원가는 아직도 불릴 정도로 한국인의 기억에 강렬하

게 남아 있습니다. 이 응원에서는 민요 ‘아리랑’이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리랑은 광화문광장과 인연이 깊습니다. 조선 말 경복궁을 중건하며 아리랑이 불렸고 이를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에서 주제가곡으로 사용합니다. 이 영화는 1926년에 만들어졌죠. 이렇듯 한국인의 한이 담긴 노래인 아리랑은 100여 년이 지난 후 2002년 월드컵 응원가로 불리며 한국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2년에 있었던 일 중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2년 6월 13일에 있었던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 2002년 6월 29일에 있었던 제2연평해전이 그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월드컵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이에 월드컵 응원의 열기는 추모의 촛불집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영화 <연평해전>으로도 제작되었는데 월드컵 응원과 서해 바다의 상황을 대조적으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은 이 모든 것을 해내는 정치, 시위, 문화, 추모의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광화문광장에는 해태상, 충무공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동상도 있는데요. 해태는 오늘날 서울의 캐릭터 해치가 될 정도로 한국인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략적 식견이 뛰어난 장수였고 공명정대한 목민관이었던 이순신 장군은 광화문광장의 초입에 우뚝 서 있고 한국사를 대표하는 최고의 성군이자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 동상은 광화문광장 중앙에 있습니다. 3개의 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니 함께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광화문광장에는 3개의 상 외에도 해치마당, 영상창, 터널 분수, 육조마당, 시간의 정원, 광장숲, 한글분수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광장 옆으로 세종문화회관과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문화와 위상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문헌】

- 서울역사아카이브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Lecture

## 1주차 서울과의 만남

###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2차시	서울의 역사: 조선시대
3차시	서울의 역사: 해방 전후
4차시	서울의 역사: 1970년대 이후

---

## 1차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

---

### 학습 목표

---

- 한국의 수도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Hello, I am Professor Eom Tae-woong from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Korea University. In <Seoul's History and Cultural Space> we will explore the various sides of Seoul, the capital of South Korea. Therefore, the aim of this series of lectures is to provide background knowledge about the historical events that occurred in Seoul that are frequently represented in popular culture in chronological order. To this end, we will look at the early Chosŏn Dynasty and Hanyang; 1637 and Songpa; the 18th century and Changdeokgung Palace and Changgyeonggung Palace; early 20th century Gyeongseong; pre- and post-liberation Seongsu; the 1970s and Cheonggyecheon; 1988 and Ssangmun-dong; 1997 and Sinchon; and finally, 2002 and Gwanghwamun Square.

We will introduce the zeitgeist, the literary works, and the culture of each era, and discuss the ways in which these periods are dealt with in today's popular culture. In doing so, this series aim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look back at the past from today's perspective. Moreover, each week i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s of Seoul>, we will delve into the current state of each area, as well as the places worth visiting. By focusing on Seoul and learning about its past history, and its current state, the ways its past was recorded at the time, and how Koreans today depict this past, we can learn how a multiplicity of temporal perspectives come to be accumulated in one space.

Now, let's introduce Seoul, the space that will be our focus i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s of Seoul>. Seoul is the capital city of Korea. In fact, the word "Seoul" itself also means the capital of a country.



Therefore, it can even be used to say "Chosŏn's 'Seoul' was Hanyang". Seoul is the only so-called 'special city' (teukbyeol dosi) in South Korea, and the other metropolitan areas that come close in scale to a special city are called 'metropolitan cities' (gwangyeoksi). South Korea's metropolitan cities are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and Ulsan. Seoul's address system is divided into two types: the road name address, such as "145 Anam-ro, Seongbuk-gu, Seoul," and the land-lot based address, such as "1-2 Anam-dong 5-ga, Seongbuk-gu, Seoul". So one building or land-lot has two addresses. Both methods specify the "gu" (district) in the city that the address falls under. Seoul is composed of 25 "gu", or districts. In alphabetical order, they are: Gangnam-gu, Gangdong-gu, Gangbuk-gu, Gangseo-gu, Gwanak-gu, Gwangjin-gu, Guro-gu, Geumcheon-gu, Nowon-gu, Dobong-gu, Dongdaemun-gu, Dongjak-gu, Mapo-gu, Seodaemun-gu, Seocho-gu, Seongdong-gu, Seongbuk-gu, Songpa-gu, Yangcheon-gu, Yeongdeungpo-gu, Yongsan-gu, Eunpyeong-gu, Jongno-gu, Jung-gu, and Jungnang-gu. It is said that people have been living in Seoul since the prehistoric era. People started living in the Han River Basin during the Paleolithic era, which dates back thousands of years BC, and began to form proper settlements during the Neolithic era. Representative relics of the Neolithic era are located in Amsa-dong, Gangdong-gu.

From 18 BC to 475 AD, Seoul was also the capital of Baekje. Baekjae moved its capital several times, and one of these capitals was Seoul. Its name at the time was Wiryeseong. Traces of Wiryeseong can still be found in Mongchontoseong and Pungnaptoseong in Songpa-gu. Wiryeseong later became known as "Hanseong," meaning a big fortress, and this period is also called "Hanseong Baekje." There is also the "Hanseong Baekje Museum" in Songpa-gu, so I hope some of those who are interested can visit it.

After that, the Seoul area was also occupied by Goguryeo. Relics from the Goguryeo period can be found at the Goguryeo relic site at Ahasan. After Goguryeo, Silla ruled the Han River Basin. After Silla took over the Han River Basin from Baekje and Goguryeo in the mid-6th century, The Silla Dynasty erected the Bukhansan Monument ('Bukhansan Jinheungwang Sunsubi') to declare its territory at Seoul's Bukhansan mountain. Currently, a

replica is erected in Bukhansan, while the genuine one is locat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Yongsan-gu.

Goryeo, a country that existed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918 to 1392, did not use Seoul as its capital, but administered it as a major region called Namgyeong. One of the representative relics of Goryeo is 'Nakseongdae,' where General Gang Gam-chan, a renowned general of the Goryeo period, was born in 948. It is currently located in present-day Bongcheon-dong, Gwanak-gu. It is called Nakseongdae because a large star fell from the sky when General Gang Gam-chan was born ('nak'/'落'=fall; 'seong'/'星'=star).

From 1392 to 1910, the Chosŏn Dynasty, and later the Korean Empire, made Seoul their capital. King Taejo, who founded Chosŏn, designated Seoul/Hanyang, as the capital city and constructed it as a space that realized Confucian ideals based on the principles of Pungsu (Korean Geomancy) and Baesanimu (Pungsu principle of having a mountain at the rear, water in the front). The term "Hanyang" itself means that it is located on the north side of the Han River. It is a name that has been used since the Silla period.

Historically, Seoul was the capital of Baekje, Chosŏn, and the Korean Empire. If we take 1392, the year Chosŏn moved its capital to Hanyang, as the starting point, Seoul has functioned as the capital of the Korean Peninsula for over 600 years. As the Chosŏn era is the closest era to the present day, many traces of Chosŏn can be found in Seoul. Hanyang, however, refers to the area within Hanyang Fortress ('Hanyangdoseong'), which is much smaller than present-day Seoul. The first building that King Taejo built when he established Hanyang was the palace of Gyeongbokgung. Subsequently, the palaces of Changdeokgung, Changgyeonggung, Gyeonghuigung, and Deoksugung were built, resulting in the five palaces of Chosŏn.

Jongmyo is a royal shrine that enshrines the kings and queens of Chosŏn, and is where the royal ancestral rites are held. Every year on the first Sunday of May, the Jongmyo Jerye and Jeryeak, both designated as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reenacted. I hope that those who are curious visit Jongmyo. At Sajikdan, where the national rites are held for the gods of land and grain, The Great Rite of Sajik Daeje is held every year on the third

Sunday of September. You can also see the procession from Deoksugung Palace to Sajikdan.

In addition, there is the Yukjo Street (Yukjogori), which was a boulevard located at present-day Gwanghwamun Square; two of its streets, Ungjonga and Yukuijeon, were the largest streets in Seoul. ‘Ungjonga’ means ‘a place where people flock to like clouds’, and it was the location of Yukuijeon, the largest market in Seoul. If you want to see how the scholars of the Chosŏn Dynasty lived, you can visit Namsangol Hanok Village located in Jung-gu. Also, you can walk along the Hanyangdoseong, the fortress surrounding the Hanyang area (Seoul City Wall). Although the entire wall is not completely intact, some parts remain, so if you are curious about the appearance of Hanyangdoseong, I recommend you visit this place.

The emblem of Seoul represents the mountains of Seoul in green, the sun in red, and the Han River in blue. The mountains represent the environment, the blue Han River symbolizes history and vitality, and the sun in the center displays the vision and hope for the future. Overall, it forms the image of an energetic person. This emblem was inspired by Danwon Kim Hong-do's genre painting “A Dancing Boy” (“Chumchuneun saram (ai)”).

Seoul is a very large city with a mix of various histories. Within it, there are histories of joy and histories of shame. It encases the large-scale history of the nation, as well as small, individual everyday moments. Seoul is the space where all these things coexist. I hope that you, too, can connect with Seoul through these lectures. Shall we set off together?

#### 【참고문헌】

- 광화문광장 아카이브
- 국가문화유산포털
- 국토지리정보원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 2차시 서울의 역사: 조선시대

---

### 학습 목표

---

- 조선시대 서울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In this session, we will focus on the history of Seoul during the Chosŏn dynasty. As Chosŏn was the country that ruled over the Korean Peninsula for over 500 years from 1392 to 1910, it is essential to examine the Chosŏn dynasty to understand modern Korea and Seoul. The founder of Chosŏn, King Taejo, chose Hanyang as the new capital city in 1394. Having founded Chosŏn, Taejo believed that a new country needed a new capital city. King Taejo requested the Buddhist monk, "Muhak Daesa," to find a new capital city. Muhak Daesa traveled the whole country to find a new capital city for Chosŏn. While traveling, he saw Wangsimni and thought it was an excellent place for new capital. At that moment, an old man passing by with his cow spoke to his cow and said, "Muhak is foolish." After hearing this, Muhak Daesa approached the old man and asked him if he knew of a place that could become the capital. The old man said to go another 10 li to the northwest, before suddenly disappearing. Muhak Daesa walked in the direction that the old man had indicated, and after going another 10 li as he said, he arrived at the place that would become Hanyang. Furthermore, the place where Muhak Daesa met the old man became Wangsimni, which means "go another 10 li" in Korean.

Today, Wangsimni is a major transportation hub where Seoul Subway Lines 2 and 5, the Suin-Bundang Line, and the Gyeongui-Jungang Line intersect. There aren't many subway stations that connect several lines like this. There is also a rather large shopping center connected to the station, as well as Hanyang University nearby, so there are many places to eat and things to enjoy.

In 1394, Taejo, the founder of the Chosŏn dynasty, established a capital in this location and set up the "New Capital Palace Construction Office" (ShindogunggwolChosŏnggam) to plan the city. He established the location of the central building required for the capital such as its palaces, "Jongmyo Shrine" where the royal family pays respects to their ancestors and holds rituals to maintain their divine status, and Sajik, a place where people pray for the prosperity of the country and crops. He also planned the locations of roads, drainage systems, and government offices. Hanyang was not the kind of city that naturally emerged and expanded, but was rather a planned area from the beginning.

Now, let's take a closer look at Hanyang during the Chosŏn dynasty. Hanyang, as the capital, wa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country and had beautiful scenery with mountains and bodies of water. Hanyang's natural features corresponded to the four cardinal directions. For example, Hanyang was surrounded by four mountains: Taraksan, better known as Naksan, lay to the east, Inwangsan to the west, Mokmyeoksan to the south (this is the mountain that features Namsan Tower), and Baekaksan lay to the north. In addition, the center of Hanyang was crossed by the Cheonggyecheon stream. Hanyang was also surrounded by four major gates, called "Sadaemun" (Four Great Gates). To the east, there was Heunginjimun. To the west, there was Donuimun, which no longer exists. To the south, there was Sungnyemun, and to the north, there was Sukjeongmun. Each of the gates was named according to their orientation, like Dongdaemun ("East Large Gate") or Namdaemun ("South Large Gate"). Additionally, there were small gates, called 'Sasomun' (Four Small Gates), located between the four main gates. To the northeast, there is the Hyehwamun Gate, and to the southeast, there is the Gwanghuimun Gate, to the northwest, there was Changuimun, and to the southwest, there was Souimun. These small gates were also called Dongsomun, Namsomun, Buksomun, and Seosomun. The connection of these eight gates made up Hanyangdoseong (Hanyang Fortress). Now, let's briefly watch a video that displays Hanyangdoseong.

From the second to the fourth week of "The History and Cultural Spaces

of Seoul," we will focus on the Chosŏn dynasty. During the second week, we will explore the early Chosŏn period, during the third week we will explore the mid-Chosŏn period, and in the fourth week we will explore the late Chosŏn period. First, let's look at the topic we will cover in the second week, the early Chosŏn period and Hanyang. Here, starting with the situation in the late Goryeo period, we will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Chosŏn, and the events of the early Chosŏn period that are frequently discussed in contemporary popular culture. Lastly, we will talk about the appearance of Seoul in modern times.

During the second week, we start with an explanation of the situation in the late Goryeo period and the establishment of Chosŏn. You will be able to listen to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situation during the establishment of Chosŏn and the struggles between its different political forces. Additionally, we will examine literary works from the Goryeo period, and through them, learn about the historical context before the establishment of Chosŏn. Works such as Kim Gukgi's "At the Bosan Station," Yi Gyubo's "Reciting Poems in Place of a Farmer," Yi Gok's "A Poem Written for a Soldier at Cheongju," and Yun Yeohyeong's "The Song of Dotolbam" are examined to trace the changes in how the consciousness of intellectuals, who took the lives of peasants as their subjects, changed. Following on from that, we will explore the establishment of Chosŏn and its literature. There is a genre of music called "akjang" that sings of the righteousness of the Chosŏn dynasty and its establishment. We examine the variegated aspects of this genre through the "Yurimga," the "Sindoga," and the "Yongbieocheonga." In particular, Joeng Do-jeon's "Sindoga" expressed anticipation for Hanyang as a new capital city, and also pays tribute to King Taejo's achievements. In addition, more recently, by putting the lyrics of the song "Seoul," released by Lee Yong in 1982, alongside the "Sindoga", we will spend some time comparing the musical representations of Seoul and its former iteration, Hanyang.

Next, we will select two frequently discussed historical events from the early Chosŏn period and explore works of popular culture that cover these events. The first are the two Princes' Revolts that occurred in 1398 and 1400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Chosŏn dynasty. KBS1's "Tears of the

Dragon," broadcast in 1996, "The King of Tears, Lee Bang-won," broadcast in 2021, "Jung Do-jeon" broadcast in 2014, and SBS's "Six Flying Dragons," broadcast in 2015, all deal with this time period in Korean history, but each focuses on different themes and lays different emphases. I hope that you find some works that you enjoy while taking this lecture.

The second event during the Chosŏn era widely covered in popular culture is the creation of the Korean writing system, "Hangul," by King Sejong the Great. King Sejong the Great was the fourth king of Chosŏn. Demonstrating his love for the nation, he created the independent writing system called 'Hangul, to facilitate smooth communication among the people. UNESCO has named an award, given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at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eradication of illiteracy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UNESCO King Sejong Literacy Prize.' This award has been presented annually since 1990. King Sejong the Great is still greatly loved by modern Koreans. As a result, King Sejong is often portrayed in contemporary popular culture. In our lecture, we will examine King Sejong and the creation of Hangul, focusing on the 2011 SBS drama "Tree with Deep Roots" and the movie "The King's Letters." Additionally, at the end of week 2, there will be some time to look at the present-day appearance of Seoul Hanyangdoseong (Seoul City Wall) through photos. I hope you take a keen interest as we travel through Hanyang and Seoul together.

Week 3 is titled '1637 and Songpa.' This week focuses on the Manchu Invasion of Chosŏn, one of the important events of mid-Chosŏn period, and will introduce four novels written immediately after the Byeongjahoran, as well as modern movies on the subject. Lastly, we will explore present-day Songpa. Week 3 begins with an explanation of the Manchu Invasion of Chosŏn (Byeongjahoran). The Manchu Invasion, which occurred in 1637, and the Japanese Invasion (Imjin Waeran) of 1592, are dubbed the 'twin calamities'. These two wars left painful scars on Chosŏn. In particular, the Manchu Invasion was an event that erupted before the wounds inflicted by the Imjin War had healed, and the fact that King Injo of Chosŏn submitted to the emperor of the Qing dynasty, assuming the role of a subject, remains a heartbreaking historical memory for modern Koreans. In this lecture, we will



provide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situation in 16th-century Chosŏn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in Northeast Asia leading up to the outbreak of the Manchu Invasion.

Following the Manchu Invasion, various literary works were created as a way to cope with the pain of defeat. In this respect, we will read the novels "Ganglojeon," "Parkssiyeon," "Imgyeongeopjeon," and "Kimyoungcheoljeon" together. The literary responses to the Manchu Invasion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those that shifted the cause of the defeat to a third party and evaded responsibility; those that depict an imaginary victory through heroic figures; and those that represent identity crisis. "Ganglojeon" effectively demonstrates the strategy of shifting the cause of the defeat to a third party and evading responsibility. It reinforces the negativity of Kang Hongrip through contrasts with other characters, love narratives, and death scenes. As we read through the scenes of the novel, we can get a glimpse of the situation at the time.

"Parkssiyeon" is a novel featuring a female hero in which the titular character, 'Park Ssi,' is portrayed as a stranger, a liminal figure, and a character who plays an active role in the Manchu Invasion. However, Park is not a real historical figure. The novel reflects the desire of the Chosŏn people to see victory, even if it is through an imaginary character. Yet, the novel "Parkssiyeon" does not depict a complete victory; instead, it illustrates a partial victory in the context of the reality of a lost war. This makes the novel even more poignant in terms of the feelings of the people at the time.

Im Gyeong-eop from "Imgyeongeopjeon" is a male character who actually existed. If you listen to the lecture, you will learn that the narrative of "Imgyeongeopjeon" is structured by adding fictional events and exempting the protagonist from responsibility towards the ruler.

"Kimyoungcheoljeon" is a literary work that depicts the identity crisis of the time. The protagonist, Kim Young-cheol, prioritizes his family over the nation or society. As a person from Ming, Qing, and Chosŏn, he also acquires a multi-faceted identity, moving between different countries.

Having examined novels that recreate the Manchu Invasion, We will now discuss how modern Koreans deal with the event through present-day filmic representations. In contemporary films, as in novels, imaginative characters appear and pursue imaginary victories. And the events of 1636, when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21st century, reveal a self-reflective view of history.

For this purpose, we will look at the films “War of the Arrows” (“Choejongbyeonggi”) and “The Fortress” (“Namhansanseong”) in this lecture. Both “War of the Arrows”, which narrativizes the war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s, and families, and illustrates the critical consciousness of the Chosŏn court at the time, and “The Fortress”, which depicts King Injo's struggle with his ministers, some of whom want to make peace with the Qing Dynasty, and others who insist on protecting Chosŏn even through war, have the power to see the present through the past. The place of King Injo's surrender was 'Samjeondo', which was a dock on the upper Han River in the past, and where the Qing Dynasty erected the 'Samjeondo Monument', a stele containing the content of the surrender, also known as 'Samjeondo Cheongtaejong Gongdeokbi'. The Samjeondo Monument is located at Seokchon Lake, where Lotte World is. I hope this lecture will b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its meaning.

Lastly, we will explore the relics of the Hanseong Baekje period through Pungnaptoseong and Mongchontoseong in present-day Songpa, and take a look at the Seoul Olympic Park, around which the stadiums of the 1988 Seoul Olympics were built. You will also be able to see the 'Songpa Sandaenori', the only mask dance in the Seoul region that is still transmitted today, with its 12 acts.

In the fourth week, we will cover Changdeokgung and Changgyeonggung during the reigns of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 Changdeokgung and Changgyeonggung are the centers of late Chosŏn history. The wooden palaces were burnt down due to the Japanese and Manchu invasions, but instead of restoring Gyeongbokgung during the war recovery process, Changdeokgung and Changgyeonggung were restored first and used as palaces. As a result,

the Chosŏn royal family stayed at Changdeokgung and Changgyeonggung from the 1600s to the mid-1800s.

Within this timeframe, we will also examine the period of King Yeongjo, who ruled Chosŏn from 1724 to 1776, and King Jeongjo, who ruled from 1776 to 1800. Both kings achieved political stability, and as a result, a multiplicity of cultures developed in Chosŏn. Yeongjo and Jeongjo implemented a merit-based appointment system called Tangpyeong policy and established the royal library called Gyujanggak, which contributed to the stability of Chosŏn. For a detailed explanation, please refer to the lecture.

The era of Yeongjo and Jeongjo, when politics were stable and culture flourished, was one of the most painful times for the Chosŏn royal family. The death of Crown Prince Sado (Sado Seja), the son of King Yeongjo and the father of King Jeongjo, left a traumatic impact on many people. Crown Prince Sado's wife, Lady Hyegyeong (Hyegyeonggung Hong), later vividly testified about her husband's death and expressed her grievances through her memoir, the "Han Jung Rok" ("The Memoirs of Lady Hyegyeong"). It seems as if King Jeongjo, her son, tried to relieve Lady Hyegyeong's grievances by bestowing her with a royal title and treating her with respect. Her grandson, King Sunjo, held a 'Jinpyo-ri Ceremony' and a 'Jinchan' feast in 1809 to celebrate the 60th anniversary of Lady Hyegyeong's entrance to the palace. The book "Gisajinpyorijinchanuigwe" contains information about these events and records every detail, allowing us to learn about the scale of the festivities at the time.

There are lectures explaining the situations faced by King Yeongjo, Sado Seja, and King Jeongjo before Crown Prince Sado's death in the Imo Incident. You can also explore the contrasting perspectives on Noble Consort Huibin Jang (Heebin Jangssi) in recent popular cultural representations which focus on the situation between King Yeongjo's father, King Sukjong and his concubine Heebin Jangssi, as well as the story of Queen Inhyeon. Through the SBS drama "Jang Ok-jung, Living by Love" ("Jangokjeong, Sarangae Salda") and MBC's "Dong Yi," we can learn about the background of Sukbin Choi, Yeongjo's mother, and the complex Yeongjo developed as a result. The

records left by Crown Prince Sado and the "Annals of the Chosŏn Dynasty" ("Chosŏnwangjosillok") also convey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Sado's death.

While there are many sad events in the history of the royal family, we cannot leave out its love stories. The love between King Jeongjo and Royal Noble Consort Uibin Seong is so famous that all Koreans know about it. We will explore this through the MBC drama "Yi San," which aired in 2007, and "The Red Sleeve" ("Otsomae Bulgeun Ggeutdong") which aired in 2021. We will also learn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using posthumous names like Sejong and Jeongjo and birth names like Yi Do and Yi San in dramas and movies. Through tvN's "Under the Queen's Umbrella" ("Shyurup"), we can also find out about the inner court system, including its queens and concubines. There is also the story of Royal Noble Consort Uibin Seong refusing King Jeongjo's royal proposal twice in 15 years. "The Tomb of the Royal Consort Written By The King" ("Eojeuibinmyojimyeong") which contains Jeongjo's feelings after Lady Uibin Sung's death, allows us to better understand this story.

Lastly, as if touring Changdeokgung and Changgyeonggung palaces, we will explain the major points along the tour course. We will examine the magnificent features of Changdeokgung, visiting Donhwamun, Geumcheongyo, Gwolnaegaksa, Injeongjeon, Seonjeongjeon, Huijeongdang, Daejojeon, and Nakseonjae. We will also explore the beautiful features of Changgyeonggung, visiting Honghwamun, Myeongjeongjeon, Munjeongjeon, Sungmundang, Hwanjeongjeon, Gyeongchunjeon, Tongmyeongjeon, Yanghwadang, Yeongchunheon, Jipbokheon, Chundangji, and Gwandeokjeong. Shall we visit the beautiful palaces and Hanyang of Chosŏn together?

#### 【참고문헌】

- 문화유산채널
- 서울역사아카이브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 3차시 서울의 역사: 해방 전후

---

### 학습 목표

---

- 해방 전후 서울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In this session, we will focus on the history of Seoul starting in the modern era.

Chosŏn entered the international stage with the 'Ganghwa Treaty', the unequal treaty it signed with Japan in 1876. In 1884, at 'Ujeongchongguk,' the first Korean post office in Jongno-gu, Seoul, there was an incident in which Chosŏn reformists, who dreamed of Chosŏn's independence and modernization, tried to seize power but ended up with the failure of the 'Three-Day Reign' ('Samilcheonha'). Ujeongchongguk is designated as Historic Site No. 213, and there is a small exhibition room inside where you can see the items actually used in the post office in the 1900s.

In 1897, Gojong, the 26th king of Chosŏn, declare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Empire. This declaration was made at 'Hwangudan', historic site No. 157. Hwangudan has a long history, having been established in 983 during the second year of King Seongjong of Goryeo's reign. It was a place where the emperor offered sacrifices to the heavens. During the early Chosŏn period, sacrifices to the heavens were not allowed, so it was not used until King Gojong declare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Empire, whereupon it was reinstalled. King Gojong's will was to show that Chosŏn, the soon-to-be Korean Empire, was an independent country like China or Japan, and the center of royal power where he aimed to bring about reform.

Independence Gate in Seodaemun-gu was built in 1897. It was built through a nationwide fundraising campaign to declare Korea's permanent independence. As a result, it is recorded that the total construction cost was 3,825 won, in the currency of the time. It was installed at the rear of

Yeongeunmun, a place where Chosŏn welcomed Chinese envoys during the Chosŏn Dynasty. Although Yeongeunmun was demolished, the lower part of the main pillar remains. Independence Gate was modeled after the Arc de Triomphe in Paris, so the shape is very similar.

However, in contrast to this desire for independence, in 1905, the 'Second Korea–Japan Agreement' between the Korean Empire and the Japanese Empire took place in Jungmyeongjeon Hall of Deoksugung Palace. Japan forced its way into Jungmyeongjeon for this agreement, and the space in front of Jungmyeongjeon was filled with Japanese military police. Ito Hirobumi, the Japanese representative, threatened the Korean Empire's ministers, and, in the end, Japan took over the diplomatic rights of the Korean Empire. King Gojong's seal was not even imprinted on the agreement.

The Jungmyeongjeon seen in modern photos was completely burned down in 1925, but the outer walls remain and have been restored. Originally, it was located inside the walls of Deoksugung Palace. However, after the walls of Deoksugung Palace were moved inward, it now appears to be separate. Chosŏn and the Korean Empire were forcibly annexed by Japan in 1910 against their own will. From 1910 to 1945, Korea experienced a time of Japanese rul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eek 5 of "Seoul's History and Cultural Spaces" focuses on Gyeongseong (the old name for Seoul) during this period, while Week 6 covers Seongbuk before and after liberation. Week 5, which is themed "Early 20th Century Gyeongseong," looks at Gyeongseong in the late Korean Empire, the history of Japanese colonial rule, early 20th-century literature, modern movies and dramas set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the trace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at remain today.

The term "Guhangmal" refers to the old Korean Empire, meaning "old" (gu) and "end" (mal) combined. Originally, it refers to the period between 1897 and 1910 during the Korean Empire but it also broadly refers to the end of the Chosŏn Dynasty. During this period, the opening of Korea to the world took place with the 1876 Treaty of Ganghwa. After opening up, the economic importance of Seoul within the nation decreased, as the urbanization of



Incheon, a port city, rapidly progressed. As a result, Seoul was demoted to a county under Gyeonggi Province in the 1895 administrative reform.

In this context, a series of tumultuous events occurred, including the 1884 Gapsin Coup, the 1895 assassination of Queen Myeongseong by Japanese agents at Gyeongbokgung Palace (the Eulmi Incident), the 1896 escape of King Gojong to the Russian legation (the Agwan Pacheon Incident), and the proclamation of the Korean Empire in 1897. In 1910, Korea was annexed by Japan. Afterward, Hanyang was renamed Gyeongseong, and this period is calle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During this time, many Japanese people moved to Gyeongseong, resulting in a high population density in the city. However,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installed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carried out urban development centered around the areas of Namdaemun-ro, Eulji-ro, and Chungmuro, where many Japanese people lived. They built Western-style buildings here and there, and constructed numerous factories in the Yongsan and Yeongdeungpo areas. In the early 1900s, department stores also emerged in Gyeongseong. In 1906, the Mitsukoshi Department Store was built in Myeongdong, followed by the Georgia Department Store and Minakai Department Store in the 1920s, and the first Korean-owned department store, Hwashin Department Store, in the 1930s. At the time, Koreans centered around Gyeongseong participated in movements opposing Japan, such as the anti-Japanese movement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Japan eventually transformed Gyeongseong into a logistical base to maintain and manage supplies for its invasion of mainland China in the 1930s. Popular literary genres of this period offer insights into the situation at the time.

The corresponding lecture will focus on Hyeon Jin-geon's "A Lucky Day," Yi Sang's "Wings," and Lee Hyo-seok's "The City and the Ghost." In Hyeon Jin-geon's "A Lucky Day," the story features a rickshaw puller, a Western-clothed customer, a student living in a dormitory, and the protagonist, who makes a living as a wage laborer selling his labor to capitalists. Through this story, we can get a glimpse of Gyeongseong in the 1920s. Yi Sang's "Wings" is a novel that skillfully utilizes the spatial

background of Gyeongseong. In "Wings," when the protagonist "I" becomes more contemplative, he often visits a coffee shop in Gyeongseong Station, while the space that hints at the protagonist's suicide at the end of the novel is Mitsukoshi Department Store. In Lee Hyo-seok's "The City and the Ghost," the first-person protagonist appears as a laborer working as a plasterer, and the difficult conditions at construction sites are well depicted.

A transformed Gyeongseong is also captured in Sijo and Gasa, genres that were popular even during the Chosŏn Dynasty. In "Mangwolsa Chinga," a man who returns to his home country from Manchuria to study describes Gyeongseong from a foreign outsider's perspective, and the scene he describes is notable for its landscape painting-like portrayal of Gyeongseong. "Burangja Gyeonggoga" is a work that sings of admonition and discipline. The author, who captures the changing appearance of Gyeongseong due to urbanization, criticizes people who have squandered their wealth on luxury and pleasure. It is truly valuable to see the spirit of the times in literary works. Now, shall we look at the early 20th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esent day? The films that deal with this period mainly focus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or show the changing landscape of Gyeongseong. They also display pride in the achievements of the Chosŏn people.

In this lecture, we will examine films dealing with the independence movement, such as "Hero" (2020), "A Resistance" (2019), "Man of Will" (2017), and "Assassination" (2015). In these works, the heroic aspects of the film's protagonists stand out,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s depicted very dramatically.

We will also look at the 2008 film "Modern Boy," which deals with the glamorous changes in Gyeongseong. The 'modern boy' in question refers to a man who shows his identity through his westernized appearance, hobbies, language, and consciousness, which led the consumer culture of Gyeongseong in the 1920s and 30s. Although sometimes perceived negatively, the modern boy is also a trendsetter. The film "Modern Boy" accurately recreates the way Gyeongseong looked at the time, so if you're curious about Gyeongseong, I recommend listening to the lecture and watching the movie.

"YMCA Baseball Team," released in 2002, is a film that shows pride in what the people of Chosŏn could achieve. It portrays the first Korean baseball team in the early 1900s, the Hwangseong YMCA Baseball Team, and shows how characters, caught between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change as they encounter baseball. Although baseball was new at the time, today it is a very familiar sport for us. As such, it makes for an enjoyable viewing experience. Dramas from this period also show the lives of Chosŏn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or show resistance against Japanese rule.

We will look at the lives of Chosŏn people trying to make a living during Japanese rule by making particular reference to "Mr. Sunshine" (2018), which aired on tvN, and "Different Dreams" (2019), which aired on MBC. "Mr. Sunshine" realistically recreates Gyeongseong at the time. The main location, Glory Hotel, is modeled after the "Sontak Hotel," which was a guesthouse for foreign dignitaries during the diplomatic process of the Korean Empire. The female protagonist of "Mr. Sunshine," Go Ae-shin, attends the modern educational institution for women, Ehwa Hakdang, which was the predecessor of present-day Ewha Girls' High School and Ewha Womans University.

"Different Dreams" is a drama that takes the building of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and Jongno Police Station as its main settings. The drama features independence activist Kim Won-bong and recreates several incidents from the independence movement period. Resistance against the Japanese rule can be seen in KBS2's "Bridal Mask," which aired in 2012. We may not be able to go directly to that era, but today's representations help us experience early 20th-century Gyeongseong by accurately recreating the various aspects of Gyeongseong at the time. Moving on, we should also take a look at the traces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that can be found in modern-day Seoul, right?

In the lecture, we will cover Namsan and Chosŏn Singung (Chosŏn Shrine), Gyeongbokgung Palace and the Governor-General of Chosŏn, as well as the Hwangudan and its adjoining hotel. At Namsan, now well-known as a place where Seoul citizens go to relax, lie the foundations of the Chosŏn Singung built by the Japanese in 1919. Although the shrine was demolished,

former President Syngman Rhee once erected his statue on the site. However, it was removed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in 1960. Today, a statue of independence activist Kim Gu stands there. The building of the Governor-General of Chosŏn, now demolished, was built at Gyeongbokgung Palace. In the process, many sections of the extant Chosŏn palaces were also demolished. The Governor-General building was right behind Gwanghwamun, completely obstructing the view of Gyeongbokgung Palace. After liberation, the building was used as the U.S. military government office, then 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e, and from 1986, a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t was only demolished in 1995, and the restoration of Gyeongbokgung Palace and other places began to accelerate. The Korean Empire began at Hwangudan. After the fall of the Korean Empire, the Japanese built the Chosun Railway Hotel on the site, which is now the Westin Chosun Hotel. During this process, the area of Hwangudan was reduced.

The appearance of Seoul can be explored in the Week 6 series of lectures, "Seongbuk Before and After Liberation." That week focuses on Seongbuk, so you can see the changing landscape of Seongbuk over time. The Seongbuk area was the region outside Hyehwamun, the eastern gate during the Chosŏn Dynas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was called Donam District, and after liberation, it became Seongbuk-gu. We will examine these changes together. With Seongbuk showing its character as a space of liberation and political activity, and the 'new city' Donam being reborn as a space for literature and art, it is also very interesting to see the collaboration process of many cultural and artistic people who gathered and lived here. In addition, as the area of Seongbuk-gu was filmed on-site, we can convey how present-day Seongbuk looks very vividly during this week.

As Gyeongseong's population grew and the city expand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Donam area became a patchwork of agricultural land, villages, and urban slums. In 1941, the Donam District was completed, but development proceeded quickly due to high demand. The military regime era (1960-70s) was when Seongbuk-gu, Donam-dong came to look as it does today. We will also take a look at this point in time together.

Major places in Seongbuk include Samseonpyeong and Simujang. First, Samseonpyeong was used as a military training ground during the late Chosŏn Dynasty. In 1896, the first modern-style athletics competition was held there, and a total of 34 athletic competitions were held at Samseonpyeong in the late Chosŏn period. These competitions not only involved sports but also elevated the will for independence and the national consciousness of Koreans. Samseonpyeong was also a place where direct conflicts with Japanese people occurred. Dosan Ahn Chang-ho gave a speech at Samseonpyeong in 1907. In this speech, he argued for building military power that could independently protect Koreans against the invasion of great powers, while also advocating for a democratic republic. This declaration led Samseonpyeong to become a political space.

After liberation, Korean political leaders, such as Rhee Syngman, Cho So-ang, An Jae-hong, and Cho Byeong-ok, lived in Donam and its vicinity. In addition, figures in literature and the arts also resided in the Donam area, many of whom depicted Seongbuk in their literary works. Descriptions of Donam Distric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an be seen in the writings of Yi Taejun, Kim Yongjun, and Palbo. The scars of war that were still felt after liberation can be seen in the writings of Park Wan-seo, Cho Ji-hoon, Kim Sung-chil, and Kim Dong-ri. The processes of recovery and urbanization in the post-war period of the 1960s and 70s are well captured by Kim Nae-seong, Kim So-jin, and Kim Gwang-seop, while the April Revolution and democratization movement are covered by Shin Dong-yeop, Cho Ji-hoon, and Kim Su-young. The redevelopment of Miari Red Light District and Donam District in the 1980s and 90s, can be seen in the works of Shin Kyung-rim, Kwon Hyuk-woong, and Kim Dae-sung. and these locations in the 2000s can be found in the works of Yoon Dae-nyeong and Choi Il-nam. We will explore this in detail in the corresponding week's lecture.

Next, we will look at the house where Manhae Han Yongun lived from the age of 55 to 66, called Simujang. 'Simu' means searching for the cow, signifying the first step for a Buddhist practitioner to realize their true

nature. In 1937, when there was no one to look after the body of independence activist Kim Dong-sam, who died in prison, Manhae Han Yongun took care of it and held a funeral. This place is also called "the last remaining land of Chosŏn." Every June, a musical called <Simu> is performed with Simujang as the backdrop. We encourage those who are interested to pay it a visit.

Lastly, we will look at the collaboration between painter Lee Jung-seop, poet Kim Sang-ok, and composer Geum Soo-hyun. Lee Jung-seop attended a book launch held in honor of poet Kim Sang-ok and left a painting called "Chicken and Crab" in the guest book. Kim Sang-ok, inspired by the painting, created a poem called "Sheet Music Painted with Flowers". Geum Soo-hyun, after reading the poem, composed a song called "Picture Painted with Flowers". The collaboration of these three cultural and artistic figures can be found in the 6th week of "Seoul's History and Cultural Spaces".

【참고문헌】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 4차시 서울의 역사: 1970년대 이후

---

### 학습 목표

---

- 1970년대 이후 서울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In this session, we will delve into the history of Seoul from the 1970s to the 2000s, focusing on specific locations. The lectures on this topic will take place from week 7 to week 10. In week 7 we will explore the 1970s and the Cheonggyecheon; in week 8, 1988 and Ssangmun-dong; in week 9, 1997 and Sinchon; and in week 10, 2002 and Gwanghwamun Square.

Regarding the 1970s, we will focus on the Cheonggyecheon. The Cheonggyecheon is a stream that flows inside the four main gates ('Sadaemun') of Seoul. Perhaps due to the importance of its location, the history of Cheonggyecheon runs parallel to the history of Seoul. Also, as industrialization progressed in the 1970s centered around Cheonggyecheon, we will explore works that depict this zeitgeist, delving into the multifaceted nature of this location.

In week 7, we will also examine the history of the Cheonggyecheon. The Cheonggyecheon has been administered since the Chosŏn Dynasty designated Hanyang as its capital. The third king of Chosŏn, Taejong, established the 'Gaechundogam' government department which was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stream improvement projects, and it was from this point on that "Gaecheon" became the proper noun referring to the Cheonggyecheon. The fourth king of Chosŏn, Sejong, designated the Gaecheon a 'living stream', ensuring that the entire capital was kept clean. The 21st king of Chosŏn, Yeongjo, established a government office called the 'Juncheonsa' to clean and restore the Gaecheon. However, sinc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has been called the 'Cheonggyecheon' instead of 'Gaecheon.' Starting in 1918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Cheonggyecheon was renovated with the purpose of relocating the central institutions of Chosŏn colonial rule north of the Cheonggyecheon, but the renovation was not carried out well.

Today, the Cheonggyecheon is one of Seoul's notable attractions. However, it has not been long since it was restored to its current form. In the 1970s, Cheonggyecheon was covered by the Cheonggye Elevated Highway, making it difficult to find the original form of the stream. The restoration of Cheonggyecheon took place from 2003 to 2005. This restoration solved safety issues, mitigated the heat island effect, and provided flood prevention. However, problems surrounding the relocation of extant markets, the issue of creating an artificial ecosystem, and problems in cultural heritage restoration are some of the issues that still rema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have arisen from the restoration of the Cheonggyecheon. This is because South Korea prioritize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70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several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During this process, Korean citizens worked overseas for their families and the nation. Amid these difficulties, the Cheonggyecheon in the 1970s was densely populated with squatter settlements.

However, with the completion of Sewoon Sangga and Nakwon Sangga, which were built in the late 1960s, the Cheonggyecheon transformed into a space symbolic of Seoul's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s mentioned previously, there are both bright and dark sides to the restoration of the Cheonggyecheon. The same is true for the factories surrounding the Cheonggyecheon. At the Cheonggyecheon, a space of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many workers suffered. In response, Jeon Tae-il, demanding compliance with the Labor Standards Act, set himself on fire in front of Pyeonghwa Market in 1970. This incident is considered to have significantly improved the labor environment in Korea. We will explore films, biographies, and animations about Jeon Tae-il.

In the 1970s in Korea, labor issues and women's issues coexisted. The reality of the urban underclass in the 1970s can be found in the novel "The Dwarf" by Cho Se-hui, the reality of urban workers is depicted in "The Road

to Sampo" by Hwang Sok-yong, whil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who suffered during this era can be found in "Young-ja's Heydays", which was adapted into a film.

The Cheonggyecheon also had printing houses and bookstores. Even today, there is an area with used bookstores by the Cheonggyecheon. In the past, there were many 'banggakbon' (woodblock-print book) publishers around the Cheonggyecheon, and many storytellers who read banggakbon novels. The Cheonggyecheon was also a center for the popularization of knowledge. The lecture in week 7 of 'Seoul's History and Cultural Spaces' will offer a great opportunity to explore the variegated history of the Cheonggyecheon.

Ssangmun-dong will be the focus of our look at the 1980s. In 1988, the global event of the 88 Seoul Olympics took place. We will examine the meaning of 1988 for Koreans through works of popular culture that dealt with this period, as well as the significance of Ssangmun-dong, Dobong-gu, Seoul, which is depicted as a key place for Seoul's grassroots culture in today's popular culture.

Dobong-gu is one of the three northeastern districts of Seoul. Dobong-gu, as the name suggests, takes its name from Dobongsan Mountain. We can infer how Dobongsan looked in the past by referring to the classical Korean poetry of Yi Hang-bok's "Chuil," Yi Sik's "Dobongjesol," Cheong-um Kim Sang-heon's poetry, Song Si-yeol's "Jedobongseowon," and King Jeongjo's "Manjangbong." Through Park Du-jin's poem "Dobong," we can also see how intellectuals in the past and present expressed their feelings about Dobongsan. We will also take a look at the examples of Ssangmun-dong, Banghak-dong, Chang-dong, and Dobong-dong.

Next, we will look at the popular culture of the 1980s. In Korea, there are many people who pine for past times, as evidenced by the term "7080." In the corresponding lecture, we will explore the connection between the 1980s and today's K-pop through the songs of Cho Yong-pil, Lee Sun-hee, Songgolmae, the late Yoo Jae-ha, and Lee Moon-se. As for popular culture, we will examine MBC's "Country Diaries" and the "Ureme" series that aired from 1980 to 2002, and take a look at the cartoons "Dooly The Little

Dinosaur" and "Alien Baseball Team."

In today's popular culture, there are many works that have gone back in time to the 1980s. By finding out how Korea remembers the 1980s, we can also learn about how modern Korea utilizes its past. In many works, characters from the present day try to solve problems that were not resolved in the past by jumping back in time. To examine this turn back towards the past, we will focus on the 2011 film "Sunny," the drama "Life on Mars," and the "Reply" series. The reason why 1988 keeps being summoned up in Korean popular culture is because global events like the 24th Olympic Games in Seoul were achieved through the efforts and sacrifices of the people. At the time, people said that these efforts and sacrifices were not difficult at all, but today's dramas and films look for stories that could not be told in that era. Ssangmun-dong is now used in popular culture as a representative space of the people's culture.

The Ssangmun-dong portrayed in the drama "Reply 1988" is not so much a reproduction of Ssangmun-dong in 1988, but rather a construction centered on the space of Ssangmun-dong as people imagine the Seoul of 1988. Due to its location on the outskirts of Seoul and its reputation as a decent residential area with good transportation, Ssangmun-dong seems to have become a symbol of a residential area for ordinary people in Seoul. We will also take a closer look at this spot.

"Dooly The Little Dinosaur" is also set in Ssangmun-dong. Ssangmun-dong, the setting of this animation, has created many Dooly-themed spaces. From police stations, to community centers, and fire stations, there are even streets with Dooly murals. As such, we will also examine Ssangmun-dong and Dooly in this lecture.

I will also introduce some attractions that can be visited in Dobong-gu today. Historical spaces include Dobongsan, the tomb of King Yeonsangun, Seoul Choansan tombs, the tomb of Princess Jeongui, Kansong House, and Wondangsaem Park, as well as Seoul Changpowon, the Peace Culture Bunker, Dooly Museum, and Ssangridan-gil. I look forward to exploring these attractions together in the upcoming lecture.

We will look at the 1990s with a special focus on Sinchon. In 1997, Korea experienced the IMF foreign exchange crisis. If we examine the Seoul of this period and the contemporary works of popular culture set in this period, we will be able to see how both individuals, and the nation as a whole, overcame this period of crisis. Also, since Sinchon has many universities, it is a gathering place for many college students. We will have an opportunity to discuss this dynamism as well.

The 1990s can be examined through the keywords "light and dark." The 1990s are now considered the center of retro culture were the heyday of idol culture and popular music, as well as the blossoming of entertainment culture and PC communication, so we will learn about this time. Sitcoms and comedy ('gag') programs also enjoyed tremendous popularity. We will examine this as well. In addition, we will look at the 1990s college scene centered around Sinchon, the communication through beepers and public telephones at the time, and the coffee shop culture of Sinchon Doksoori Dabang. And I will also recommend a few popular songs from that time.

The 1990s are also famous for its "fin de siecle" sentiment." New and different fashion trends emerged, with terms like hip-hop fashion, biker gangs, and Orange Tribe coming into prominence. There is also a story about the enormously popular craze of basketball at the time.

However, the 1990s were not all positive. The IMF financial crisis that erupted in 1997 was a national crisis and caused great pain to individuals. Fathers became unemployed overnight, which is well portrayed in the song "Arcade" by Han's Band. There are also works that directly deal with the frustration of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e movies "Default" and the drama "Reply 1994" show examples of father and daughter unemployment well. The trials faced by the characters in the 2018 drama "Twenty-Five, Twenty-One" are also related to the IMF financial crisis. At that time, Koreans tried to overcome the crisis through the 1997 gold collection campaign, reminiscent of the 1907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Although the IMF left indelible scars, it also demonstrated the Koreans' ability to overcome crises.

In the 1990s, there was also an opening of popular culture coming from Japan. Perhaps because of Korea's history as a colony of Japan, Japanese content was difficult to officially import into Korea. Although Japanese content was accepted illegally, it began to be properly imported in the 1990s. There were concerns that Korean culture would be eroded by Japanese culture if cultural imports were opened up, but today,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ulture has increased to the extent of the emergence of so-called "Korean Wave." From movies and dramas to idol groups, and even food, Korean culture is being propagated overseas, and we will examine this point together.

Lastly, we will look at various aspects of the 1990s, which is the center of the current retro craze. The drama "Twenty-Five, Twenty-One," which depicts our youth, the movie "Architecture 101," which recalls the first love of youth, and the drama "Reborn Rich," a story of overcoming pain in youth, all look back fondly on the 1990s.

Gwanghwamun Square will be our focus as we delve into the 2000s. In 2002, there was the Korea-Japan World Cup. Following 1988, the World Cup, a global event, held great significance for Koreans. We will explore these aspects well with reference to popular culture based on this period. In particular, we take a look at the World Cup soccer chants that are still loved even after 20 years. We will also discuss national events that occurred at the same time as the 2002 World Cup and examine the aspects of various events happening at the same time. Furthermore, Gwanghwamun Square is both a space for relaxation and a politically charged space. So, we will also take a look at the history of Gwanghwamun Square.

Gwanghwamun was built in 1395 as the main gate of Gyeongbokgung palace. However, it was destroyed during the Imjin War of 1592 and rebuilt in 1865 by Heungseon Daewongu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s new building was erected right behind Gwanghwamun, and Gwanghwamun was also destroyed during the Korean War in 1950. Since then, Gwanghwamun was restored to its current form, with Gwanghwamun Square as a place for rest right in front of it. You can see

that Gwanghwamun is an important part of Korea's history. During the Chosŏn Dynasty, Gwanghwamun Square was the Six Ministries Street, where the six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f Chosŏn were located. In the 20th century, Gwanghwamun's steel arch was used to promote national projects. In 2009, the central median area was turned into Gwanghwamun Square. In 2022, Gwanghwamun Square, which was surrounded by roads like an island, was transformed into a genuine public square, not by cutting through the roads on both sides, but by pushing the roads to one side. In this way, Gwanghwamun Square was the center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during the Chosŏn Dynasty, a means of national propaganda in the 20th century, and in the 21st century, the center of political communication and cheering culture.

In 2002, the Korea–Japan World Cup took place. At that time, Gwanghwamun Square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This is because the street cheering culture of Korea began at that point. Many World Cup official chants and Korean cheering songs are still vividly remembered by Koreans to the extent that they are still sung today. In these cheers, the folk song "Arirang" is also sung. Arirang has a deep connection with Gwanghwamun Square. Arirang was sung during the reconstruction of Gyeongbokgung palace at the end of the Chosŏn Dynasty, and it was used as the theme song in director Na Un-gyu's movie <Arirang>. The movie was made in 1926. Thus, after more than 100 years, the song Arirang, which contains the sorrow of the Korean people, was sung to support Koreans at the 2002 World Cup.

However, there is something that must be remembered amid the events that happened in 2002. Namely, the US military incident in which two middle school girls were crushed to death on June 13, 2002, and the Second Battle of Yeonpyeong on June 29, 2002. Both events occurred during the World Cup period. As a result, the enthusiasm of the World Cup cheering transformed into the mourning of a candlelight vigil. The Second Battle of Yeonpyeong was made into the movie "The Battle of Yeonpyeong", which contrasts the cheering of the World Cup and the situation in the West Sea. Gwanghwamun Square was reborn as a space for politics, protests, culture, and mourning, and one capable of containing all these things.

Gwanghwamun Square also features statues of Haetae, Admiral Yi Sun-shin, and King Sejong the Great. Haetae has become an important figure for Koreans, to the extent that it has become the character Haechi of modern-day Seoul. General Yi Sun-shin, a military commander with outstanding strategic insight and a renowned civil servant, stands tall at the entrance of Gwanghwamun Square. The statue of King Sejong the Great, who represents the best of Korean history and created the Korean alphabet, Hunminjeongeum, is located in the center of Gwanghwamun Square. We plan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three statues, so it would be great if we could explore them together. Today's Gwanghwamun Square has various attractions, including the three statues, Haechi Madang, Video Window, Tunnel Fountain, Yukjo Madang, Time Garden, Square Forest, and Hangul Fountain. In addition, the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an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History are located next to the square. If you would like to learn more about the culture and standing of South Korea, please take a look around with us.

【참고문헌】

- 서울역사아카이브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讲义

1주차

서울과의 만남

##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2차시	서울의 역사: 조선시대
3차시	서울의 역사: 해방 전후
4차시	서울의 역사: 1970년대 이후

---

## 1차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

### 학습 목표

---

- 한국의 수도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大家好, 我是高丽大学国语国文系教授严泰雄. <首尔的历史和文化空间>是为了考察韩国首都首尔的各种面貌而策划的. 因此, 在首尔发生的事件中, 以时代顺序选取了大众文化中涉及的事件, 以介绍背景知识为目的. 届时将考察朝鲜前期和汉阳、1637年和松坡、18世纪和昌德宫、昌庆宫、20世纪初的京城、解放前后的城北、1970年代与清溪川、1988年与双门洞、1997年与新村、2002年与光化门广场. 介绍选定的各时代的时代景象和文学作品、文化, 讨论今天的大众文化中探讨该时期的方式. 通过这些, 试图提供给大家可以从今天视角看待的过去的机会.

另外, 在<首尔的历史和文化空间>中, 按照周数分类, 考察该场所现在的样子及适合游览的景点. 以首尔为中心, 通过过去的历史和现在的面貌、过去记录当时的方式和今天的韩国人表达过去的方式, 可以了解在在同一个空间中积累的时间性.

那么本课时将介绍一下在<首尔的历史和文化空间>中探讨的空间—首尔. 事实上, 首尔本身就意味着‘一个国家的首都’. 因此, 可以像“朝鲜的首尔是汉阳”一样使用. 首尔是大韩民国唯一的特别市, 韩国的广域市有釜山、大邱、仁川、光州、大田、蔚山. 首尔的地址分为写作‘首尔市 城北区 安岩路145’的道路名地址的方式和写作‘首尔市 城北区 安岩洞5街1-2’的地番地址的方式. 相当于一栋建筑物或一块土地有两个地址. 两种方式都明确显示了市以下直到区的单位.

首尔由25个区组成, 按가나다顺序排列的话, 有江南区、江东区、江北区、江西区、冠岳区、广津区、九老区、衿川区、芦原区、道峰区、东大门区、铜雀区、麻浦区、西大门区、瑞草区、城东区、城北区、松坡区、阳川区、永登浦区、龙山区、恩平区、钟路区、中区、中浪区.

据说, 首尔人从史前时代开始在此居住. 汉江流域开始有人居住是从公元前数万年前的旧石器时代开始的, 正式形成村庄生活的是新石器时代. 新石器时代的代表性遗址是江东区岩寺洞遗址. 公元前18年到475年, 首尔还是百济的首都. 百济曾多次迁都,

其中一处是首尔，当时的名称是慰礼城。当时的痕迹作为梦村土城和风纳土城留在了松坡区。慰礼城后来被称为汉城，意为‘大城’，松坡区还有‘汉城百济博物馆’，希望有兴趣的同学去参观一下。

此后，首尔地区被高句丽占领，高句丽时代的遗址可以在峨嵯山高句丽遗址看到。继高句丽之后，支配汉江流域的是新罗。新罗在6世纪中叶，从百济、高句丽手中夺走汉江流域后，在首尔的山北汉山，为了宣布领土，树立了<北汉山真兴王巡狩碑>。现在北汉山立有仿制品，真品位于龙山区的国立中央博物馆中。高丽是918年至1392年位于韩半岛的国家，虽然没有将首尔作为首都，但称其为‘南京’，作为主要地区进行管理。位于首尔的代表性高丽遗址是高丽时代名将姜邯赞将军948年出生的‘落星堡’。位于今天的冠岳区奉天洞。据说，姜邯赞将军出生时，天上有一颗大星星坠落，故称‘落星堡’。

1392年至1910年位于韩半岛的朝鲜和大韩帝国以首尔为首都。建立朝鲜的太祖将首尔，即汉阳定为都城，根据背山临水和风水地理，建设成了体现儒教理念的空间。‘汉阳’本身就是汉江北侧的意思，是从新罗时代开始使用的地名。历史上，首尔是百济、朝鲜和大韩帝国的首都。以朝鲜1392年迁都汉阳为基准，首尔在近600年以上时间里都是韩半岛的首都。不管怎么说，朝鲜时代和现在最接近，所以在首尔可以找到很多朝鲜时代的痕迹。

汉阳以汉阳都城为基准，指的是都城内侧，所以比今天首尔的领域要小很多。太祖建造汉阳时最先建造的建筑是景福宫。此后建造了昌德宫、昌庆宫、庆熙宫、德寿宫等宫殿，朝鲜拥有了五座宫殿。宗庙是供奉朝鲜国王和王妃的王室祠堂，进行王室祭祀。每年5月第一周星期日，会再现被联合国教科文组织指定为世界无形遗产的宗庙祭礼及祭礼乐，希望好奇的同学务必去参观一下。

在向土地和庄稼之神进行国家祭祀的空间—社稷坛，每年9月的第三个星期日都会举行社稷大祭。还可以看到从德寿宫到社稷坛的御驾队伍。除此之外，今天位于光化门广场的六曹街、云从街和六矣廛也曾经是首尔最大的街道。云从街意味着人们云集，是首尔曾经最大规模的市场—六矣廛的所在地。如果想要看一下朝鲜时代儒生们的生活的话，可以访问位于中区的南山谷韩屋村。

另外，围绕汉阳的领域设置的汉阳都城也可以通过散步路看到，虽然不是全部区段，还剩下一定的区间，如果好奇汉阳都城的面貌，请访问一下这里。

首尔的徽章中代表首尔的山是绿色，太阳为红色，汉江为蓝色。据说山展现了环境，青色的汉江展现了历史和活力，中间的太阳展现了未来的蓝图和希望，从整体上看，是‘高兴的人’的样子。这也是从檀园金弘道的风俗画<舞童>中获得的灵感。首尔是一个

很大的城市，各种历史交织在一起。其中有快乐的历史，也有耻辱的历史。还有国家层面的重大历史，也有个人留下的小日常。这一切交织在一起的空间就是首尔。

希望大家听完这个讲座，也可以与首尔同行。那么一起出发吧。

【참고문헌】

- 광화문광장 아카이브
- 국가문화유산포털
- 국토지리정보원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 2차시 서울의 역사: 조선시대

---

### 학습 목표

---

- 조선시대 서울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本课时将集中探讨朝鲜时代首尔的历史。朝鲜是从1392年到1910年统治韩半岛500多年的国家，对于理解现代韩国和首尔，考察朝鲜时代是非常重要的事情。建立朝鲜的王太祖于1394年，将汉阳定为新都城。建立朝鲜的太祖认为建立新国家，应该重新确定首都。太祖要求佛教的僧人无学大师寻找新都城。无学大师为了寻找朝鲜的都城，辗转全国各地。在此过程中看到现在的‘往十里’后，觉得这里是风水宝地，所以打算把往十里定为都城。就在这一瞬间，一位老人拉着牛走过，对牛说“笨得像无学无术一样”。听到这话的无学大师走近老人问道：“您知道可以成为都城的地方吗？”老人说：“再往西北走十里。”然后突然消失了。无学大师向老人告诉的方向走去，老人所说的再走十里的地方，就是汉阳。而且，无学大师与老人见面的地方成了“往十里”，意思是‘再走十里’。往十里也是今天的交通要塞。首尔地铁2号线、5号线、水仁盆唐线、京义中央线在此通行，像这样连接多条地铁线路的地铁站也很少见。紧挨着大型购物中心，周围还有汉阳大学，美食店和娱乐设施也很多。

太祖于1394年在相应的位置定都后，为城市规划设置了‘新道宫阙建成都监’，并确定了首都必备的宫阙和供奉王室神位、进行祭祀的宗庙、祈愿国土繁荣、粮食丰收的场所—社稷等中心建筑的位置。进一步规划了道路、排水、办公地点等。汉阳自然形成的村庄并不是扩张的形态，而是从一开始就计划好的地区。

那么，让我们再详细了解一下朝鲜时代的汉阳。城汉阳地处国家中心，山清水秀，景色优美。汉阳拥有符合东西南北方位的自然景物。汉阳被四座山环绕着。东边是骆驼山，也叫驼山，西边是仁王山，南边是木觅山，坐落着南山塔的是这座山，北边是白岳山。其中心是清溪川。

另外，汉阳是四个大门内部的区域。这被称为四大门。东边是兴仁之门。西边是敦义门，现在没有留下。南边是崇礼门，北边是肃靖门。也像这样各大门上附上方位，称其为东大门、南大门等。四个方位之间还有一个小门，即四小门。东北方向是惠化门，东南方向是光熙门。西北方向有彰义门，西南方向有昭义门。这些小门也被称为东小

门、南小门、北小门、西小门. 将这八扇门连接起来就成了‘汉阳都城’.

这里有一段充分展现汉阳都城的影像, 我们来看一下.

<首尔的历史和文化空间>的第2周到第4周集中于‘朝鲜’, 第2周将考察朝鲜前期, 第3周是朝鲜中期, 第4周是朝鲜后期.

首先来看一下讲述朝鲜前期的第2周‘朝鲜前期与汉阳’. 这里将介绍高丽末期的情况、朝鲜的建国以及今天大众文化中经常涉及的朝鲜初期事件. 最后还有关于今天的汉阳面貌的介绍. 第2周将以关于高丽末期的情况和朝鲜建国的说明开始. 可以仔细听到关于朝鲜建国当时的情况和政治势力的移动的讲解.

另外, 通过阅读高丽时代的文学作品, 可以了解朝鲜建国前的时代面貌. 通过考察描述高丽时代农民生活的金克己的作品《宝山驿》、李奎报的《代农夫吟》、李谷的《纪行一首—寄清州参军》、尹汝衡的《橡栗歌》, 可以追踪到知识分子对农民的认识的变化.

接下来将考察朝鲜的建国和文学. 存在歌颂朝鲜建国和王朝正当性的、所谓‘乐章’的体裁, 将通过乐章中的《儒林歌》、《新都歌》、《龙飞御天歌》等了解乐章的细节. 特别是郑道传的《新都歌》是一首关于新都城的歌曲, 表现出了对汉阳的期待感, 并且颂扬了太祖的圣德. 并且将通过李涌1982年发表的《首尔》的歌词, 比较一下在《新都歌》中吟咏的汉阳和《首尔》中歌咏的首尔.

接下来将从朝鲜前期的事件中选出经常被提及的两个事件, 一起考察描绘该事件的大众文化作品. 第一个事件是1392年朝鲜建国与1398年和1400年发生的两次王子之乱. KBS1于1996年播出的《龙的眼泪》, 2021年播出的《太宗李芳远》, 2014年播出的《郑道传》, 最后SBS于2015年播出的《六龙飞天》, 虽然都讲述了朝鲜建国时期, 但其内容和强调点存在差异. 希望听课时能介绍大家喜欢的作品.

第二个大众文化中经常涉及的朝鲜前期事件是‘世宗大王创制韩文’. 世宗大王是朝鲜的第四位国王, 以创造自主的朝鲜文字, 使百姓沟通顺畅的爱民精神, 创造了所谓‘韩文’的韩语表记系统. 联合国教科文组织将授予在世界各国扫盲事业中立下汗马功劳的个人或团体的功劳奖命名为‘联合国教科文组织世宗大王文解奖’, 从1990年开始每年颁发一次. 世宗大王深受现代韩国人的喜爱, 因此今天的大众文化中也经常提到世宗大王. 在我们的讲座中, 将以SBS2011年播出的《树大根深》、电影《国之语音》为中心, 了解世宗大王和韩文的创制.

在第2周的最后, 将通过照片来看一下之前考察的首尔汉阳都城今天的面貌. 因为是与汉阳和首尔一起旅行的时间, 所以请多多关注.

第3周的主题是‘1637年与松坡’。本周将以朝鲜中期重要事件之一的‘丙子胡乱’为中心，介绍丙子胡乱后创作的四部小说以及今天的电影。最后还可以看到松坡今天的面貌。

第3周将以关于丙子胡乱的说明开始。1637年的丙子胡乱与1592年壬辰倭乱被并称为‘两乱’。这两场战争是给朝鲜留下痛苦创伤的战争，特别是丙子胡乱是在壬辰倭乱中经历的创伤还未痊愈时发生的事件，朝鲜的君主仁祖向清朝皇帝行臣子之礼并投降，这一点对今天的韩国人而言也是非常痛心的历史记忆。该讲座将详细介绍直到发生丙子胡乱的16世纪朝鲜的情况和东北亚国际局势，丙子胡乱后，从日常层面出发，作为可以解决失败痛苦的方法，创作了多种文学作品，将一起考察这一部分。

作为小说，将一起阅读《姜虬传》、《朴氏传》、《林庆业传》、《金永哲传》，将针对丙子胡乱的小说性应对方式分为将战争失败的原因归咎于第三者从而回避责任的方式、通过英雄争取想象的胜利、形象化认同感混乱的方式并进行考察。《姜虬传》很好地展现了将战争失败的原因归咎于第三者、推卸责任的方式。在与其他人物的对照、爱情叙事、临终场面等方面，强化姜弘立的否定性，通过一起阅读小说的场面，可以推测出当时的情况。《朴氏传》是一部女性英雄小说，在这部小说中，将朴氏形象化成异人、境界人等，描绘成在丙子胡乱中活跃的人物。只是小说反映了，朝鲜民众希望即便不是实际人物作为想象中的人物朴氏也要取得胜利的心情。但在小说《朴氏传》中，描绘了不是完整的胜利的失败的战争的现实与‘部分的胜利’，从这一点来看，感到当时民众的心情更加令人惋惜。《林庆业传》中的林庆业是男性，是实际存在的人物。如果听课的话，可以确认《林庆业传》是以小说中添加虚构事件，免除关于执政者的责任的方式构成的叙事。《金永哲传》是一部将当时的认同感混乱从文学角度进行形象化的作品。主人公金英哲比起国家或社会更重视家庭。另外，移动到多个国家，获得了明朝人、清朝人、朝鲜人的身份认同。

如果考察了用小说再现丙子胡乱的作品，接下来将通过今天的电影作品讨论现代韩国人看待丙子胡乱的方式。在今天的电影中，与小说相似，想象性主体出现在电影中，追求想象的胜利。而且通过从21世纪今天的观点看待1636年事件，也展现了关于历史的反省性研究。为此，本讲座将考察电影《最终兵器：弓》和《南汉山城》。展现战争和个人、家人的叙事，描绘当时对朝鲜朝廷批判意识的《最终兵器：弓》与描绘在与主张清朝和睦相处的大臣和主张即使战争也要守护朝鲜的大臣之间，十分矛盾的仁祖形象的《南汉山城》，具有通过过去审视现在的力量。仁祖的投降场所是过去汉江上游的渡口—‘三田渡’，清朝建造了包含投降内容的石碑三田渡清太宗功德碑、即三田渡碑。三田渡碑位于乐天世界所在的石村湖，希望通过该讲座成为重温其意义的机会。



最后，将通过今天松坡的风纳土城、梦村土城，了解汉城百济时期的遗迹，并介绍以1988年首尔奥运会的竞技场为中心建造的首尔奥林匹克公园。此外，还可以看到松坡地区传承下来的首尔地区唯一的假面游戏‘松坡山台游戏’12场。

第4周将介绍英祖和正祖时期的昌德宫和昌庆宫。昌德宫和昌庆宫是朝鲜后期历史的中心地。壬辰倭乱和丙子胡乱导致木制建筑的宫殿被烧毁，在战争收拾过程中没有复原景福宫，而是先复原昌德宫和昌庆宫，用作宫殿。因此，从1600年代到1800年代中期，朝鲜的王族一直居住在昌德宫和昌庆宫。其中，将考察从1724年到1776年统治朝鲜的‘英祖’和从1776年到1800年统治的‘正祖’的时代，因为两位国王在政治上实现了稳定，因此各种文化得到了发展。英祖和正祖实行人才录用系统的‘荡平策’，建立了王室图书馆—奎章阁，实现了朝鲜的安定，对此的详细说明请通过讲座确认。

政治稳定、文化绽放的英祖、正祖时代，对朝鲜王族而言，是遭受巨大痛苦的时期之一。英祖的儿子、正祖的父亲—思悼世子的死亡给很多人留下了创伤。思悼世子的夫人惠庆宫洪氏后来通过《闲中录》生动地证明了丈夫思悼世子的死亡，同时表露了自身的委屈。似乎是为了给惠庆宫洪氏伸冤，作为儿子的正祖给惠庆宫洪氏赐子宫号，招待了她。作为孙子的纯祖在1809年为庆祝惠庆宫洪氏入宫60周年举行了‘进表里’仪礼和‘进饌’。包含相关内容的《己巳进表里进饌仪轨》记录了活动的所有情况，所以今天我们也可以了解当时活动的规模。

在解释思悼世子之死的壬午祸变之前，还准备了说明英祖、思悼世子、正祖的情况及壬午祸变发生的讲座。在讲述英祖的父亲肃宗时代的情况和禧嫔张氏、仁显王后的故事的当今大众文化中，可以了解到关于禧嫔张氏的相反的视角。通过英祖的母亲淑嫔崔氏登场的电视剧SBS《张玉贞，为爱而生》和MBC《同伊》，可以确认淑嫔崔氏的出身及由此引发的英祖的自卑情结。并且通过思悼世子留下的记录和《朝鲜王朝实录》传达思悼世子死亡当时的情况。虽然王室有很多悲伤的事情，但其中也不能少了爱情故事。正祖和‘宣嫔成氏’的爱情非常有名，韩国人都知道，将通过2007年播出的MBC《李祘》和2021年播出的《衣袖红镶边》来考察一下。在电视剧或电影中，可以了解像世宗、正祖一样以庙号命名的角色名和以李祹、李祘等本名命名的角色名之间的差异。通过tvN《王后伞下》还可以了解内命妇，即王妃和后宫制度。还有宣嫔成氏15年间两次拒绝正祖的承恩的故事，通过记录宣嫔成氏的实际生活，以及宣嫔成氏死亡后正祖的心情的《御制宣嫔墓志铭》，可以更清楚地了解二人的故事。

最后，就当与大家一同参观今天的昌德宫和昌庆宫，按照参观路线介绍一下昌德宫和昌庆宫的主要地点。按照敦化门—金川桥—阙内各司—仁政殿—宣政殿—熙政堂—

大造殿－乐善斋的顺序观赏昌德宫的美景， 按照弘化门－明政殿－文政殿－崇文堂－欢庆殿－景春殿－通明殿、养和堂－迎春轩－集福轩－春塘池－观德亭的顺序来看一下昌庆宫的美丽面貌。一起来美丽的朝鲜宫阙和汉阳游览一番吧。

【참고문헌】

- 문화유산채널
- 서울역사아카이브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 3차시 서울의 역사: 해방 전후

---

### 학습 목표

---

- 해방 전후 서울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本课时将集中了解近代以后首尔的历史.

朝鲜以1876年与日本签订的不平等条约《江华岛勒约》为开端, 开始走向国际舞台. 1884年, 位于首尔市钟路区的韩国最早的邮局‘邮政总局’曾发生过梦想实现朝鲜独立及近代化的朝鲜开化派试图掌握政权的事件, 但最终‘三日天下’告终. 邮政总局被指定为213号史迹, 里面设有小展厅, 可以确认1900年代邮政局实际使用过的物品等.

1897年, 朝鲜第26位国王高宗宣布建立大韩帝国. 其场所就是157号史迹‘圜丘坛’. 圜丘坛是高丽成宗2年983年建造的历史悠久的地方. 曾是天子祭天的场所. 朝鲜初期, 禁止祭天, 因此不再使用, 但伴随着高宗宣布大韩帝国的建立, 重新被设立了. 这是展示高宗要展现朝鲜, 即大韩帝国与中国或日本一样是独立国家的意志. 展示要以王权为中心实现改革的意志的场所.

位于西大门区的独立门建于1897年. 这是为了宣布韩国的永久独立, 通过全民募捐运动建立的大门. 因此, 还有记录显示, 当时总工程费花费了3825韩元. 被建在朝鲜时代迎接中国使臣的迎恩门后面. 虽然迎恩门被拆毁, 但所建的立柱的下部仍然存在. 独立门是参照巴黎凯旋门建造的, 形状非常相似. 而与这种独立的渴望不同, 1905年在德寿宫重明殿, 大韩帝国和日本帝国签订了<第二次乙巳条约>. 日本为了签订该协议, 涌入了重明殿, 重明殿前空间里挤满了日军宪兵队. 曾是日本代表的伊藤博文威胁大韩帝国的大臣, 最终大韩帝国的外交权由日本代理. 该协约甚至没有盖上高宗皇帝的玉玺印章. 在今天的照片中可以看到的重明殿是1925年因火灾全部被烧毁后, 外墙残存而复原的. 另外, 原本位于德寿宫围墙内, 但随着德寿宫围墙向内移动, 现在看起来像是分开了一样.

朝鲜和大韩帝国不是出自本意, 而是因他人, 于1910年与日本强制合并. 从1910年到1945年, 韩国经历了被日帝统治的日帝强占期. ‘首尔的历史和文化空间’在第

5周记录了这段时期京城的面貌,

在第6周记录了解放前后城北的面貌. 第5周将以‘20世纪初的京城’为主题, 考察旧韩末期的京城面貌、日帝强占的历史和京城、20世纪初的文学, 了解当今描绘20世纪初的电影和电视剧, 以及残留至今的日帝强占期的痕迹. 旧韩末期, 这里的旧韩末期是意味着大韩帝国的旧韩国, 即在‘旧-韩国’一词上加上意为结束的‘末’而形成的. 原指大韩帝国时期的1897年至1910年, 但也指朝鲜末期. 在这个时期, 1876年因<江华岛勒约>开港, 开港后国家内首尔的经济比重减少了. 这是因为开港场所周边, 即仁川的城市化进程很快. 最终首尔在1895年行政制度改编过程中被降格为京畿道下属的郡. 在这种情况下, 1884年甲申政变、1895年高宗的夫人明成皇后被以日本公使为主轴的日本人在景福宫杀害的事件-乙未事变、1896年高宗移动到俄罗斯公使馆的事件-俄馆播迁、1897年宣布大韩帝国等, 紧张地发生了一系列事件. 1910年经历了韩日合并. 此后汉阳被称为‘京城’, 这一时期被称为日帝强占期. 在日帝强占期, 日本人大量进入京城, 京城的人口密度也随之增加. 只是日本帝国设立的统治机构‘朝鲜总督府’以日本人聚居地区的南大门路、乙支路、忠武路为中心进行了城市开发. 而且到处都建造了西式建筑, 在龙山和永登浦一带建设很多工厂.

1900年代初, 京城还出现了百货商店. 1906年三越百货商店在明洞成立, 1920年代建成了佐治亚百货商店、三中井百货商店, 1930年代韩国人建立的第一家百货商店一和信百货商店成立了. 当时韩国人以京城为中心展开了对抗日本的运动, 即抗日运动和独立运动, 日本在1930年代将京城改为维持和管理侵华补给品的后勤基地. 通过这个时期流行的文学体裁, 可以窥见当时的情况.

在讲座中, 将以玄镇健的《好运的一天》、李箱的《翅膀》、李孝石的《城市和幽灵》为中心进行了解. 玄镇健的《好运的一天》中出现了人力车夫的形象和穿西装的客人、向宿舍的学生和资本家提供劳动力赚取劳动费的主人公的样子. 由此可以窥见1920年代京城的面貌. 李箱的《翅膀》是很好地利用京城的空间背景的小说. 在李箱的《翅膀》中, 将京城站的咖啡厅设定为主人公‘我’每次想法变多时, 都会经常去的空间, 小说最后暗示主人公自杀的空间就是三越百货商店. 在李孝石的《城市和幽灵》中, 做泥瓦工的第一人称的主人公作为赁劳动者登场, 很好地展现了建设现场的艰难面貌等. 发生改变的京城面貌在曾流行于朝鲜时代的体裁-时调和歌辞中也能捕捉到. 《望月思亲歌》的特点是, 在满洲生活了一段时间, 而后为了学习回到祖国的男性, 用来自异地的异乡人的视线描绘了当时京城的面貌, 并将这种面貌像风景画一样描绘出来. 《浮浪子警告歌》是一部歌咏警告和训诫的作品. 作者捕捉到京城向城市化转变的面貌, 谴责那些因奢侈或娱乐而耗尽财产的人. 能够从文学作品里看到当时的时代面貌是一件非常珍贵的事情.

那么, 让我们以今天的眼光来看一下20世纪初吧.

这个时期的电影主要讲述独立运动或者展现京城变化的面貌. 或者表现出朝鲜人也能做到的自豪感. 讲座中, 作为以独立运动为主题的电影, 将考察2020年的《英雄》和2019年的《抗拒:柳宽顺的故事》、2017年的《队长金昌洙》和2015年的《暗杀》. 在这些作品中, 电影中主人公的英雄面貌非常突出, 日帝殖民统治中的独立运动被描绘地非常戏剧化. 作为讲述京城不断改变的华丽面貌的电影, 考察了2008年播出的《摩登公子》. 摩登公子是指1920年代到1930年代, 通过主导京城消费文化的西方面貌和兴趣、语言、意识展现自身认同感的男性. 《摩登公子》虽然被认为是负面的, 但也被认为是引领新流行的人物. 而且电影《摩登公子》很好地再现了当时京城的景象, 如果好奇京城的样子, 推荐听完讲座看一下电影.

2002年上映的《YMCA棒球队》是一部展现了‘朝鲜人也能做到’的自豪感的电影. 描绘了1900年代初韩国最早的棒球队皇城基督教青年会棒球队, 展现了处于传统和变化中的人物与棒球相遇后发生变化的样子. 虽然当时棒球是新鲜事物, 但对今天的我们而言, 是非常熟悉的体育项目. 在这其中观看电影也会很有趣. 在描绘这一时期的电视剧中, 也展现了日帝强占期朝鲜人的生活或对日本帝国主义的反抗. 生活在日帝强占期的朝鲜人的生活将以tvN于2018年播出的《阳光先生》和MBC2019年播出的《异梦》为中心进行了解. 《阳光先生》在作品中真实地复原了当时的京城. 作品中的主要场所Glory酒店是以大韩帝国与多个国家建立外交的过程中, 作为招待贵宾的宿所运营的‘Sontag Hotel’为原型的. 《阳光先生》的女主人公高爱信在为女性服务的近代教育机构—梨花学堂就读. 梨花学堂是今天的梨花女子高中, 也是梨花女子大学的前身. 《异梦》是以朝鲜总督府和钟路警察局为主要背景的电视剧. 电视剧中出现了独立运动家金元凤, 再现了独立运动时期的一些事件. 对日帝的抵抗可以在2012年播出的KBS2的《新娘面具》中确认. 虽然我们不能直接去往相应的时代, 但可以帮助我们体验20世纪初的京城的今天的内容产物, 很好地再现了当时京城的多种面貌. 那么也应该了解一下今天在首尔可以看到的日帝强占期的痕迹.

讲座将介绍南山和朝鲜神宫、景福宫和朝鲜总督府、圜丘坛和酒店. 今天作为首尔市民的休息场所而广为人知的南山, 留有日帝在1919年建造的朝鲜神宫的旧址. 虽然这座神宫被拆除了, 但前总统李承晚曾把自己的铜像竖立在朝鲜神宫旧址上. 只是在1960年4·19革命之后被拆除了. 而且今天这里还留有独立运动家金九先生的铜像. 朝鲜总督府建筑虽然今天已被拆除, 但曾经建于景福宫中. 在此过程中, 除了景福宫之外, 还有很多朝鲜宫殿被拆除. 朝鲜总督府的建筑紧挨着光化门, 所以将景福宫全部遮住了. 解放后该建筑也曾被用作美军政厅的办公楼, 也被用作大韩民国政府办公楼, 1986

年起被用作国立中央博物馆。该建筑直到1995年才被拆除，以此为起点，开始加速进行景福宫等复原工作。大韩帝国是从圜丘坛开始的。日帝在大韩帝国灭亡后，在此建造了朝鲜铁路酒店。这家酒店就是现在的西部朝鲜酒店。在此过程中，圜丘坛的区域也缩小了。之后首尔的样子可以在第6周的‘解放前后的城北’中了解。该周的讲座将以城北为中心，可以看到随着时代的改变而变化的城北的样子。

城北地区是朝鲜时代的东小门-惠化门外的区域，日本殖民统治时期是敦岩地区，解放后成为城北区。将一起考察一下其面貌。城北展现了既是解放空间，也是政治空间的性质，而且新城市敦岩成为了文学、艺术的空间，文化艺术人士聚集在一起生活，因此他们的合作过程也非常有趣。再加上相应周次的讲座直接去现场拍摄了城北地区，因此可以更加生动地传达今天城北的面貌。

日帝国强占期在京城人口增长和城市扩张的过程中，敦岩地区曾是农田、村落和城市贫民的土幕村。1941年敦岩地区竣工，因为需求巨大，所以进行了紧急开发。城北区敦岩洞变成今天这个样子是在军事政权时期(1960-70年代)。关于这个点，我们也一起考察。

城北的主要场所是三仙坪和寻牛庄。首先，三仙坪是朝鲜后期用作军事训练场的地方。是1896年首次举办近代式运动会的场所，旧韩末期在三仙坪共举办了34次运动会。当时的运动会不仅是单纯的运动，还提高了朝鲜人的独立意志和民族意识。这里也是与日本人发生直接摩擦的地方。岛山安昌浩先生于1907年在三仙坪进行‘三仙坪演讲’。在此次演讲中，他主张在列强的侵略中培养能够守护独立的军事力量，同时主张民主共和。因为这一宣言，三仙坪成为了政治性空间。

解放后主导韩国政治的政治家李承晚、赵素昂、安在鸿、赵炳玉居住在敦岩及其附近。再加上文学及艺术相关人士也居住在敦岩地区，在文学作品里描绘了城北的样子。日帝强占期敦岩地区的面貌可以从李泰俊、金瑬俊、八甫的文章中看到。解放后战争的伤痕可以从朴婉绪、赵芝薰、金圣七、金东里的文章中看到。金来成、金昭晋、金玟燮很好地捕捉到了1960年代和70年代战争以后的重建过程以及城市化，申东烨、赵芝薰、金洙暎探讨了4·19和民主化运动。1980年代、90年代弥阿里占星村和敦岩地区的再开发，从申庚林、权赫雄、金大城的作品中，以及2000年代之后的尹大宁、崔一男的作品中看到。我们将在相应周次的讲座中详细了解一下。

接下来将考察万海韩龙云从55岁到圆寂的66岁居住的家-寻牛庄。‘寻牛’意为寻找牛，是修行者领悟本性的第一阶段。1937年在狱中去世的独立运动家金东三的尸体无人照顾，万海韩龙云收殓尸体后，在此举行了葬礼。因此也被称为‘最后剩下的朝鲜的



土地’。而且每年6月，寻牛庄都会上演以寻牛庄为背景的音乐剧《寻牛》。有兴趣的同学一定要去一次。

最后，我们考察了画家李仲燮、诗人金相沃、作曲家金水贤的交流。李仲燮参加了诗人金相沃的出版纪念会，在访客簿上留下了《鸡和狗》的作品。金相沃看到这幅画后，创作了题为《以花描绘的乐谱》的诗作。金水贤读完这首诗后，创作了歌曲《以花描绘的画》。像这样三位人物展现的文化艺术的合作可以在‘首尔的历史和文化空间’第6周看到。

【참고문헌】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 4차시 서울의 역사: 1970년대 이후

---

### 학습 목표

---

- 1970년대 이후 서울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本课时将以特定场所为中心，考察1970年代到2000年代的首尔历史。这是该讲座从第7周到第10周的内容。

第7周的主题是1970年代和清溪川，第8周是1988年和双门洞，第9周是1997年和新村，第10周是2002年和光化门广场。将以清溪川为中心考察1970年代。

清溪川是流经首尔四大门内的河流。可能是因为位置的重要性，清溪川的历史与首尔的历史如出一辙。另外，以清溪川为中心，在1970年代进行了产业化，因此我们将仔细考察描绘时代面貌的作品，展现清溪川的各种面貌。

第7周我们将考察清溪川的历史。清溪川是伴随着朝鲜将首都定为汉阳，开始被管理的河流。朝鲜第3代王太宗设置了‘开川都监’，实施了开川整备事业，从此‘开川’成为了称呼清溪川的固有名词。朝鲜的第4代王世宗将开川规定为生活河流，使整个都城保持整洁。朝鲜第21代国王英祖设置了名为‘濬川司’的机构，使开川恢复得十分干净。只是从日帝强占期开始，清溪川不再被称为开川，而是被称为‘清溪川’。在日帝强占期，为了将朝鲜殖民统治的中枢机关迁移到清溪川以北，从1918年开始整修清溪川，但整修并不顺利。

今天清溪川是首尔的代表性景点。恢复到这个样子并没有很久。清溪川在1970年代被‘清溪高架桥’覆盖，很难找到河川的面貌。花费了从2003年到2005年的时间进行了复原。这一修复解决了安全问题，消除了热岛现象，也达到了防涝的效果。只是留下了已存商圈的迁移问题、人为生态系统的建设、文化遗产的复原等问题。清溪川复原后，同时出现了优点和缺点。这是因为1970年代大韩民国将经济发展作为了首要目标。韩国政府制定了多次经济开发五年计划。在此过程中，韩国国民为了家人和国家，还去了海外劳动。在这种困难中，1970年代清溪川聚集着棚户区。但随着1960年代末建设的世运商街、乐园商街竣工，清溪川逐渐成为首尔近代化和产业化的象征性空间。

我说过在清溪川复原中也有明亮和黑暗的部分。清溪川周边的工厂也是如此。在近代化和产业化的空间—清溪川，很多劳动者遭受了痛苦。对此，全泰一烈士于1970年在和平市场前要求遵守劳动标准法并自焚。以这个事件为契机，韩国的劳动环境得到了很大的改善。一起来看一下有关全泰一烈士的电影、评传、动画等。

在韩国的1970年代，也存在着劳动问题、女性问题。1970年代城市下层居民的现实，在曹世熙的小说《矮子发射的小球》中可以看到，城市劳动者的现实在黄皙暎的《去三浦的路》中可以看到，牺牲的女性形象在改编成电影的《英子的全盛时代》中可以看到。清溪川也曾坐落着印刷厂、书店等。时至今日，清溪川仍然有旧书店聚集的区域。据说，过去清溪川周边以坊刻本的方式出版了很多书籍，也有很多朗读坊刻本小说的传奇叟。

清溪川也是知识大众化的中心地。希望‘首尔历史和文化空间’的第7周讲座可以成为与大家一起了解具有多种性格的空间—清溪川的机会。1980年代以双门洞为中心。1988年曾举办过世界级活动88首尔奥运会。通过讲述这一时期的大众文化作品，将考察1988年对韩国人的意义，以及在今天的大众文化中被描绘成首尔平民文化代表场所的首尔市道峰区双门洞的意义。

道峰区是首尔东北地区的3个区之一。道峰区，就像名字一样，取自道峰山。通过歌咏道峰山的、李恒福的<秋日>、李植的<道峰霁雪>、清阴金尚宪的诗、宋时烈的<题道峰书院>、正祖留下的<万丈峰>等朝鲜时代的汉诗，可以推测出道峰山过去的样子。通过歌唱道峰的朴斗镇的诗作<道峰>，可以看到过去和现在的知识分子对自然景观物道峰山的感情。并且将一并考察双门洞、放鹤洞、仓洞、道峰洞的由来。

接下来将考察1980年代的大众文化。在韩国‘7080’一词，足见有很多人怀念当时。在讲座中，将通过歌手赵容弼、李善姬、海东青、已故柳在夏、李文世的歌曲，寻找与当今K-POP相连的支点。并且了解作为大众文化的1980年到2002年播出的MBC《田园日记》和《雷鸣鹰系列》，介绍漫画《小恐龙多利》、《恐怖的外人球队》。

在当今的流行文化中，在时间上回归1980年代的情况很多。通过了解韩国如何回忆1980年代，也可以了解今天韩国如何将过去进行对象化。今天的人物为了解决过去没能解决的事情而投身回到过去。作品方面，以2011年上映的电影《阳光姐妹淘》、电视剧《火星生活》、《请回答》系列为中心，考察一下回归过去。在韩国的大众文化中，1988年之所以经常被召唤，是因为第24届首尔奥运会等世界性活动是通过国民的努力和牺牲而获得的。虽然当时说这种努力和牺牲一点都不辛苦，但今天找到了那个时代没能讲述的故事，拍摄成了电视剧和电影。双门洞作为今天平民文化的代表性空间，在

大众文化被使用。电视剧《请回答1988》中描绘的双门洞，与其说是再现了双门洞的1988年，不如说是以双门洞为中心，构筑了人们心中所想的首尔的1988年。双门洞以所谓首尔的外围和交通良好的平民居住地为特点，因此成为了首尔平民居住地的象征。也将考察这一地点。

《小恐龙多利》的背景也是双门洞。作为该漫画角色背景的双门洞，打造了很多以多利为特色的空间。警察局、居民中心、消防局，还有画着多利画像的道路。关于双门洞和多利，我们将在讲座中了解一下。并且将介绍今天在道峰区值得一去的景点。有道峰山、燕山君墓、首尔楚安山坟墓群、贞懿公主墓域、涧松旧居、元堂泉公园等历史空间，还有首尔菖蒲园、和平文化阵地、多利博物馆和双理团路。希望能通过讲座一起参观一下推荐的景点。

将以新村为中心来了解一下1990年代。1997年韩国发生了IMF外汇危机。从这一时期首尔的面貌和今天以这一时期为背景的大众文化作品来进行考察的话，可以同时看到国家层面以及个人克服危机的情况。另外，新村因为聚集了很多大学，所以也是大学生们聚集的地方。可以一并讨论这种活力。

1990年代也可以用‘明与暗’这个关键词来分析。今天被认为是复古中心的1990年代。将了解偶像文化和大众音乐的全盛期，娱乐文化和PC通信绽放的这一时代。情景喜剧和搞笑节目也吸引了大量人气。对此将一并考察。另外，将以新村为中心，考察1990年代大学街的样子，以及用BB机、公用电话沟通的当时的景象，还有代表咖啡厅文化的新村秃鹫茶馆。并且将给大家推荐几首当时流行的歌曲。1990年代以‘世纪末感性’而闻名。出现了与以往不同的新时尚，使用嘻哈时尚、飞车族、橙子族等用语。当时也有人气爆棚的篮球大盛宴的故事。像这样1990年代并不仅是积极的。1997年爆发的IMF外汇危机是全国性的危机，也给个人带来了很大的伤害。一夜之间，家里的父亲变成了失业者，这在汉斯乐队的歌曲《娱乐室》中得到了很好的体现。也有直接讲述外汇危机的挫折的内容。电影《国家破产日》或电视剧《请回答1994》中父亲和女儿失业的事例很好地证明了这一点。2018年播出的电视剧《二十五，二十一》中登场人物所经历的考验也与IMF外汇危机有关。当时的韩国人通过让人联想起1907年国债补偿运动的1997年募金运动，试图努力克服危机。IMF虽然留下了无法洗刷的伤口，但也展现了韩国人克服危机的力量。

1990年代还实现了对日本大众文化的开放。可能是因为曾是日本殖民地的韩国历史，日本的文化内容很难正式进口到韩国。因此，虽然也曾非法接受过日本内容，但从1990年代以后开始，正常进口。有人担心，如果开放文化，韩国文化会被日本文化蚕食，但现在韩国文化已经提高了自身的竞争力，甚至出现了被称为‘韩流’的韩国文化热

潮。从电影和电视剧等文化内容，进一步到偶像组合，再到美食，韩国文化正在向海外传播，我们将一起了解这一点。

最后将考察处于复古热潮中心的1990年代的各种面貌。确认我们的青春的电视剧《二十五岁》，回忆青春初恋的电影《建筑学概论》，克服痛苦的青春电视剧—《财阀家的小儿子》，回忆着美丽的1990年代。

接着将考察一下2000年代的光化门广场。2002年举行了韩日世界杯。作为继1988年之后再次迎来的世界性活动，世界杯对韩国人来说意义重大。期待通过以这个时期为基础的大众文化，可以好好了解一下这种情景。将了解一下即便在20多年后的今天仍然深受喜爱的世界杯应援歌。另外，将讨论与2002年世界杯同一时间发生的国家事件，并考察同一时间发生的各种事件的情况。而且光化门广场既是休息的空间，也是具有政治性质的空间。我们将来看一下光化门广场的历史。

光化门是1395年作为景福宫的正门而建成的大门。但1592年壬辰倭乱时遭到破坏，1865年兴宣大院君进行了重建。日帝强占期，紧挨着光化门建造了朝鲜总督府的新办公楼，1950年韩国战争时，此门也被破坏。此后，光化门被复原，成为今天的面貌，光化门正前方出现了名为光化门广场休息空间。由此可见，光化门也与韩国的历史同在。朝鲜时代的光化门广场是作为朝鲜中央行政机关的六曹所在的六曹街。20世纪还通过光化门钢架拱门宣传了国家事业。2009年中央隔离带形式的地方被改造成为光化门广场，2022年为了将如岛屿般被包围在道路之间的光化门广场变成真正的广场，将两边贯通道路的形式，改成了把道路归拢到一边的形式。这样看来，光化门广场是朝鲜时代的政治和行政中心，也是20世纪国家宣传的手段，21世纪发展成为政治沟通和应援文化的中心。2002年举行了韩日世界杯。当时光化门广场发挥了非常重要的作用。因为从当时起，韩国的街头应援文化开始了。很多世界杯的官方及韩国的应援歌曲至今仍在演唱，在韩国人的记忆中留下了深刻印象。在应援中也唱了民谣‘阿里郎’。阿里郎与光化门广场有着很深的渊源。朝鲜末期重建景福宫时唱了阿里郎，在罗云奎导演的电影《阿里郎》被用作主题曲。这部电影是1926年拍摄的。像这样，包含着韩国人遗憾的歌曲《阿里郎》在经过100多年后，被作为2002年世界杯应援歌演唱，为韩国人应援。

但2002年发生的事情中，有一定要记住事情。那就是2002年6月13日发生的美军轧死女中学生事件和2002年6月29日发生的第二次延坪海战。这两起事件都发生在世界杯期间。因此，世界杯应援热潮变成了追悼的烛光集会。第二次延坪海战也拍摄成了电影《延坪海战》，将世界杯应援与西海的情况进行交叉对照。光化门广场重新诞生为实现这一切的政治、示威、文化、追悼空间。

光化门广场上还有獬豸像、忠武公李舜臣铜像、世宗大王铜像。对韩国人而言，獬豸是非常重要的存在，甚至成为了今天首尔的角色Hae Chi。作为具有卓越战略见识的将帅、光明正大的牧民官的李舜臣将军，矗立在光化门广场入口，代表韩国历史的最高圣君、创造训民正音的世宗大王铜像位于光化门广场中央。将对这三座雕像进行详细了解，希望大家一起参观一下。

今天的光化门广场除了三座雕像外，还有獬豸园、影像窗、隧道喷泉、六曹院、时间庭院、广场森林、韩文喷泉等多个看点。另外，广场旁边有世宗文化会馆和大韩民国历史博物馆，如果了解大韩民国的文化和地位，请一起考察一下。

#### 【참고문헌】

- 서울역사아카이브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